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JUN 16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851 1982년 6월 16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June 16, 1982

토론토발행인 : 김 영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점 서
광 고 국 장 : 송 광 호

알젠틴 항복·포크랜드전쟁종지부

(런던=영국)포크랜드 주둔 알젠틴군이 항복했다고 15일 마가렛·대처 영국수상이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가 있기 6시간전, 포크랜드 수도 포트·스탠리를 결사적으로 수비하던 7천명의 알젠틴군은 항복을 상징하는 흰 깃발을 게양, 74일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포크랜드 군도(남대서양, 알젠틴 동부해상 위치)는 영국영이었으나 알젠틴 군부가 국민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지난 4월2일 기습, 점령해 버렸다.

대처수상은 의회에서 현지 시간 하오 4시를 기해 포크랜드에 총성이 멎었다고 말하고 "대영제국은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Great Britain is great again)"라고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영국 발표에 의하면 포크랜드의 영국군 사령관 제레미·무어 소장은 알젠틴군의 사령관 벤자민·메넨데즈 준장으로부터 항복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강인한 군지도자 메넨데즈 준장은 영국의 「무조건 항복」 요구를 수락할 것인지 여부를 집권자인 군사혁명위원회와 협의하기 위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륙했다.

영국은 앞으로 알젠틴이 포크랜드의 행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곧 알젠틴 포로들을 송환하겠다고 말했다.

무어장군은 현지시간 밤 9시, 토론토시간 밤8시에 항복통고를 받았다.

포트·스탠리는 수일간 영국 공정대및 해병대 9천명에 의해 포위됐었다.

양국군 교전 사이에서 미처 피난하지 못했던 6백명 민간인의 소재와 안전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포크랜드에는 1800명의 영국계가 양을 치며 살아왔다.

한편 워싱톤의 국방성 소식통은 알젠틴이 영국군의 맹렬공격과 해상봉쇄로 인해 겨울방한복, 음식, 탄약등이 모자라! 사기가 크게 떨어졌던 것이 패인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포크랜드에는 강풍이 부는 엄동설한이 계속되고 있다.

포크랜드 전쟁에서 영국군 전사자는 250명, 알젠틴은 7백명, 부상자는 양측이 수백명씩이었고 양측은 전투기, 군함, 물자등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물자손실을 입었다. 10주간 전투에서 영국은 18억달러를 소비했다. 항복전 최종 전투에서 영국군 약 40명이 전사했다.

해상을 봉쇄한 영국함대를 뒤에 두고 배수진을 친 알젠틴군은 2주간 용감하게 싸워 포트·스탠리를 방어했다. 영국군이 14일 수도 2마일 밖에 있는 3개의 고지를 점령하자, 알젠틴군은 시내로 패주했다.

한편 소련과 브라질 축구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일찍 귀가했던 알젠틴 국민들은 "우리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속았다"면서 항상 승리 선전만을 일삼아 온 군사혁명위원회를 비난했다. 야당인사들은 레오폴도·갈티에리 혁명위원장의 사임과 민간정부 구성을 요구했다.

인력은행 개설

한국최초 1일부터

(서울15일=연합)한국 최초의 인력은행이 7월1일부터 개설된다고 한국경영협회(KMA)가 15일 발표했다.

인력은행은 자질이 우수한 사원을 원하는 경영주들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재고용의 기회를 찾을 경우 그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얼마나 혼줄이 빠졌을까? 알젠틴군이 버리고 간 헬멧, 깡통, 탄창등이 「구스·그린」지역에 흩어져 있다. 알젠틴군들은 6백명 영국군과 14시간에 걸친 전투 끝에 「젊음아 날 살려라」고 패주, 1,600명중 1,200명이 포로가 됐다.

한인회비 납부자 늘어

납부율 4%, 찬조금으로 적자메꿔

"적자에 허덕이는 한인회"(5월13일자 1면톱)란 보도가 나간지 20일만에 한인회비 납부자수는 배로 늘었으나 전체 회원에 비해 납부자수는 아직도 미미한 상태이다.

지난5월11일까지 20달러씩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139명이었으나 이후 각 교회등으로 적극 찾아나선 한인회(회장 박인순) 간부진의 노력으로 숫자는 5월말 현재 113명이 늘은 252명. 토론토 한인가구수를 약 6천세대로 추산할때 납부율은 4%가 약간 넘는다.

한인회는 이밖에도 이사회(이사장 함병섭)분담금 $2,200, 박인순회장의 $1,145 등 약 1,700달러의 찬조금으로 근근히 적자살림을 메워나가고 있다.

한인회비 납부처는 The Korean-Canadian Cultural Asso. 20 Mobile Dr. Toronto, Ont. M4A 1H9 이다. 전화문의는 755-9288

소련 이스라엘에 강력경고

도주설 도는 아라팟 포위망에

(베이루트)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 게릴라본부를 중심으로 포위망을 점점 좁히고 있는 이스라엘은 소련으로부터 「레바논에서 전면 철수하라」는 위협을 받았다.

소련은 15일 강력한 성명을 통해 「중동은 소련남부 국경을 이루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소련의 국익과 직결됨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포위한 이스라엘군은 아랍게릴라 고위간부들을 체포하기 위해 시내로 진격할지 모른다고 아릴·샤론 이스라엘 국방상이 14일 밝혔다.

아랍게릴라(PLO) 지도자 야세르·아라팟을 포함, 5~6천명 게릴라들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포위망에 걸려 시내에 몰려 있다.

아라팟은 이날 그가 시리아로 도망쳤다는 소문을 부정하기 위해 소련제 AK-47 자동소총을 들고 시내를 돌았다. 그는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제2의 스탈린그라드로 만들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어떠한 무력도 우리를 짓밟지 못한다"고 말했다.

스탈린그라드는 1942년 나치군이 침공, 수만명이 전사한 소련도시로 이 전투에서 독일은 패해 패망을 부채질했다.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입성직전 휴전을 선언하고 PLO의 항복을 권유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번 레바논침공에서 전사 170명, 부상 2천명의 인명피해를 입었고 아랍게릴라는 전사 2천명, 시리아는 전사 1천명이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군 탱크 3백대, 게릴라 소유탱크 1백대를 파괴했고 미그전투기 85대, 헬리콥타 5대를 격추했다.

관계사진 2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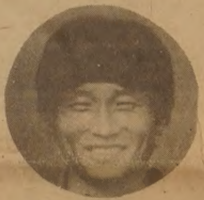
조영증 어깨부상

블리쟈드팀과의 경기불참

오늘(16일)밤 토론토·블리쟈드 프로축구팀과의 경기차 토론토에 올 예정이던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팀버스팀의 조영증선수가 어깨부상으로 오지 못하게 됐다.

조선수는 14일 본사에 전화를 걸어 "지난 8일 잭슨빌에서 가진 경기에서 어깨를 다쳤다. 의사, 코취등과 상의, 무리해서라도 토론토에 가려고 노력했으나 출전금지령을 받았다. 나를 기다리던 토론토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팀버스팀의 코취는 주요멤버인 조선수가 부상을 치료하면서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팀버스팀의 홈게임 3연전에나 출전할 것을 명령했다. 조선수는 16일 의사를 다시 찾아가 토론토출전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의사는 그가 출전할 만큼 완쾌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조영증선수

81년 팀 입단이라 1게임도 결른적이 없는 조선수에게는 이번 사고가 첫번째의 큰 부상이다.

한편 한인 팬들을 위해 본지에 광고하던 블리쟈드팀의 대변인 브링크씨는 "한인관중에게는 미안한 소식이다. 조선수가 못오더라도 많이 나와 좋은 실력을 가진 팀버스팀과 대전하는 블리쟈드팀을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축구협회(회장 고광남)는 조선수 응원준비및 「환영의 밤」도 계획했었다.

입장권 반환희망자는 17일까지 구입처를 통해 반환할 수 있다.

社 告

미국 포틀랜드·팀버스팀에 소속, 오는 16일 토론토에서 토론토·블리쟈드팀과 축구경기를 가지려던 한국 유일의 북미프로축구선수 조영증이 어깨부상으로 못오게 됐읍니다. 조선수는 빠졌으나 팀버스팀은 예정대로 16일 밤 8시 CNE스타디움에서 블리쟈드와 북미프로축구리그전을 가집니다.

본사와 각 식품점등을 통해 입장권을 구입한 교민중 조선수가 없는 팀버스와 블리쟈드와의 게임관람을 원치않는 분은 오는 17일까지 구입처를 통해 티켓을 반환하면 전액 환불됩니다.

본사는 이와 관계없이 블리쟈드의 홈게임 전게임 입장권을 판매합니다.

한국일보사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 627 Bloor St. W.
533-8593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북한수용소 해방촉구 범민족 서명운동

지난 30여년동안 무고한 북한동포들의 피와 땀을 수탈하면서 이제 그아들 김정일에게 왕관을 세습하려 하고 있으며, 그 세습에 반대하는 북한동포들을 가차없이 탄압하고 있는것입니다. 강압에 의해 강제노동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선량한 동포가 10만명이상이며, 이들의 해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운동을 전개하오니 교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일성은「붉은 파쇼왕조」에 항거하는 동포들을 수용소로부터 해방하라!
◎김일성은「특별독재대상구역」을 철폐하고 민족과 인류앞에 사죄하라!

번호	성 명	서 명	주 소 (또는직장)

연락처 :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주관 : 승공문화협회 회장 이 근우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전체 한인교회의 단합 보여
연합전도대회, 2,200여명 참석

토론토연합전도대회 마지막날인 13일 2,200여명의 한국및 캐네디안 신도들은 인종을 초월, 같은 찬송과 기도를 함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확인했다.

약 1천대의 주차시설을 갖춘 크로스로드 캐씨드럴 펜티코스탈교회의 주차장은 이미 예배시간 시작 20분전에 가득차 교회옆과 근처 길가 주차장까지 동원됐었다.

드럼과 트럼펫등 각종 관악기가 동원된 동교회 캐네디언 밴드와 파이프올갠, 2대의 그랜드피아노의 연주에 맞춰 부르는 찬송은 우렁찼다.

설교에 앞서 박재훈 박사가 지휘하는 연합성가대는 헨델의 메시야중 "할렐루야"를 불러 만장의 우뢰와 같은 갈채를 받았다. 동교회 담임 모간 목사는 이같이 아름다운 노래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극찬했다.

통역 그렌·데이비스(한국명: 태비수)목사를 대동한 강사 박조준 목사(47·서울 영락교회 담임)는 "펜티코스탈(오순절)교회에서 예배보기는 처음이라 한동안 정신이 나갔다가 지금에야 돌아왔다"고 조크를 해 좌중을 웃겼다. 데이비스 목사의 통역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만치 훌륭했다. 현재 캐나다장로교단 간부로 있는 데이비스목사는 17년동안 일본파견 선교사로 재일교포교회를 담임, 한국어에 능통하다.

박목사는 「심판이냐 구원이냐」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최후의 심판을 부정하나 성서에는 장차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으며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목사는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타락한 인간들이 심판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며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죄의 회개이며, 회개는 즉시 해야하고 지, 정, 의 요소가 합일된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가 끝난후 박목사와 모간목사는 새로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강단앞으로 초청, 30여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 기도를 받았다.

이번 연합전도대회 부대회장인 김재광목사(토론토 영락교회 담임)는 예상했던 것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토론토 전체 한인교회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선교 10주년기념사업으로 열린 이번 토론토 연합전도대회는 연인원 5천명, 결신자 150여명, 헌금및 찬조금을 포함한 수입 $12,500이 들어와 경비를 제외 $5,000정도 남았다. 남은 수입은 앞으로 토론토 전체한인교회들을 위한 공동 기금으로 사용된다.

한국일보
533-2361

◆강사 박조준목사와 통역 그렌·데이비스목사.

◆연합전도대회에서 제스츄어를 써가며 열광적으로 찬송을 부르는 한 신도.

제1회 북미태권도대회
박주삼도장 주최 호구착용등 필수

블루어 거리(814 Bloor St. W.)에 도장을 갖고 있는 박주삼태권도장이 제1회 북미태권도 초청 챔피온쉽전을 개최한다.

오는 19일(토) 이토비콕 올림픽스타디엄에서 열릴 이번 대회에는 캐나다, 미국 각지역에서 약 40개도장 500여선수가 출전한다.

72년이후 10년동안 토론토에서 태권도장을 오픈, 교포및 캐네디안 태권도인 양성에 힘을 바쳐왔던 박사범은 태권도협회 통합추진등에 노력해온 중견사범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태권도협회(총재 김운용) 규정에 따라 호구를 착용하게 된다.

각 체급 결승및 각 도장 태권도사범과 문하생들의 시범경기도 이날 하오7시부터 펼쳐진다.

방학중 무료 야외교육
4~8학년 대상·7주간 하이·팍에서

하이·파에서 해마다 열리는 야외교육(The High Park School for Outdoor Education) 프로그램이 오는 7월5일부터 8월27일까지 7주간 실시된다.

여름방학중 4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상대로 월~금요일 아침 9시부터 하오 3시15분까지 무료로 실시되는 이 강좌는 하이·파(블루어 남쪽×킬(Keele 서쪽)에서 열린다.

토론토시 공원및 오락국(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이 토론토 교육위와 공동주최하는 이 강좌는 조류학, 지질학, 정원및 연못관리, 새와 나비에 관한 것등을 비롯 자전거 타기, 캠핑,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크리켓, 축구, 사진, 목수일등 다양한 프로그램이며 매주 다른 프로로 짜여져 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직접 하이·파으로 오거나 또 매일 아침8시30분부터 55분사이 하이파 서브웨이에서 공원까지 차편이 제공된다.

등록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598-4931 ext.667 or 668, 7월5일 이후는 762-7582이다.

◆「밥다」로 진격한 이스라엘 탱크부대원이 탱크앞에서 교태를 부리는 레바논 아가씨를 보고 미소짓고 있다. 중동전은 살고 죽는 순간에도 낭만이 있어 좋다?

제5계절
북미 어린이의 독서경향

김현순 (음악가)

◆김현순여사

외국생활에 무척이나 융화되기 어렵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내가 십여년의 대륙생활에 시달리다 보니 영어로 서투른 회화도 하게 되고, TV도 제법 즐기게 되어 서양사람이 된듯한 착각을 느낄때가 있다.

과연 내가 서양사람이 되었을까? 눈에보인 문화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한국사람도 서양사람도 아닌 "한서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에 빠질때마다 한국적 특징과 서양적인 특징을 찾아보려고 애쓰게 된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때의 내 행동과 이곳 사람들의 행동을 비교도 해보고, 쇼핑할때의 이곳 여자들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을 견주어 보기도 한다. 내가 일하는 도서관에서도 이곳 직장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를 눈여겨 본다.

이런 중에서도 최근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것은 바로 이곳 북미 어린이들, 특히 그들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선택하는 그 경향에 대해서이다.

우선 어린이들이 많은책을 읽는다는데 대해서 놀랐다. 그책의 종류가 국민학교 학생이니까 어떠어떠한 종류만 읽을것 이라는 가정은 거의 할 수가 없다. 중학교학생이 동화를 빌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학교학생이 소설을 많이 빌려가는데 놀라지 않을수 없다.

어느 어린이 할 것 없이 자기가 읽고싶은 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

어떤 어린이는 소설만 계속해서 빌려가는가 하면, 어떤 어린이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빌려가기도 한다. 어떤 어린이에게 대개 한달에 몇권이나 읽느냐고 물어보았더니, 30권쯤은 될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하였다. 책읽는것이 학교의 숙제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아니라고 한다.

특기해야 할 일은 이 어린이들이 읽는 책의 거의 대부분은 학교공부와 관계가 없는 책이라는 점이다.

도서관에 마련해 놓은 그 많은 책들, 특히 아동부문의 책들을 볼때마다 정말 잘 산다는 것의 증거를 찾게되는 것 같다. 어릴때부터 어린이가 스스로 도서관에 와서 이 책들을 한권씩 읽어나갈때 얼마나 풍부한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될까··· 그 개개인이 이룩하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 될까··· 그러한 가정들은 어떤 사회를 이루게 될까···

최근 뉴욕에서 오래 살아온 친지를 만나서 이런저런 내용의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그분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걱정스럽게 해주었다.

한국의 2세들이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학교성적이 "A"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는 고등학교 때처럼 두각을 나타낼만큼 잘해내지 못한다고 한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그러하다고 덧붙이면서 걱정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 교포들은 자녀교육문제를 냉철히 생각해야할 것 같다. 학교공부, 점수 따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시키고 있다. 그리고 학교점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당장의 학교성적과는 관계가 없는 책은 얼마나 읽도록 관심을 가졌는지, 바로 이러한 점이 이곳 북미 부모와 우리 부모들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다음 글에서는 특히 어린이의 독서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써보겠으며, 그 다음은 독서와 정서발달, 독서와 성교육등의 순서로 쓸 계획이다.

경제특집 시상 FORUM ③
불황 진단과 대책

이수신(캐나다외환은행전무)

◆이수신전무

경제현상 가운데 가장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금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금리가 경기후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 금리만 내리면 생산이 증가, 실업자가 줄고 경기도 좋아지는등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금리는 일련의 경제현상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경제활동이 왕성, 투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하면 금융면에서 자금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금리인상효과가 나타난다.

보다 더 중요한 금리의 기능은 실질금리(Real Interest Rate)이다. 즉 캐나다의 금리(여기서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14%라고 한다면 이는 명목금리를 애기하는 것이고, 실질금리는 여기에서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율을 공제하고 본 4%(14%-10%)가 실질금리이다. 미국의 정기예금금리가 12%라도 인플레이션율이 7%이하라면 실질금리는 5%로 미국측이 높다. 따라서 금리를 이용, 경제활동을 진작시키거나 위축시키려면 이 실질금리를 인하 또는 인상시켜야 된다.

현재 캐나다의 금리수준은(이하 실질금리)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다. 이는 1)캐나다내의 외국자본(전체의 70%를 차지한다)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2)연일 하락하고 있는 캐나다달러를 보호하며, 3)기업이나 가계의 자금수요를 감퇴시켜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가지 요인이 지속되는 한 캐나다 금리는 높은 한다. 이런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을때 투자도 증가시키고 주식도 대량으로 사고, 재고도 어느정도 증가시킨다. 즉 얼마 안있어 경기가 풀릴 것이라는 대담한 판단하에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투기를 피하는 사람(Risk Averter)들이다. 대부분의 봉급자들, 중년층 이상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투기보다는 안전을 추구한다. 따라서 신규투자보다는 은행예금을,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부동산을 선호한다.

결국은 자기가 이 두 부류가운데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자신의 경제활동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도 현금보유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

현금보유는 인플레이션율만큼 자산의 자동감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참고로 통계를 인용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경기후퇴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기가, 투자늘이고 사업확장
안정가, 부동산투자 안정저축

73년 10월 유류파동이후 세계경제가 불황의 늪으로 서서히 빠져 들자 사람들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금융부문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70년대 하반기부터 금리는 이미 금융부문에서의 자금의 수요·공급을 중계시키는 자율적인 시장조절기능을 상실한채 집권자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하나의 정책도구로 전락했다. 즉 금리는 중앙은행이 경기를 조절하고 환율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최후의 무기로 이용되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리의 이러한 기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발표하는 예금·대출금리는 명목금리(Nominal Interest Rate)이다.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의 금리가 떨어져서 미국자본이 높은 금리를 찾아 캐나다로 다시 몰려 들고 캐나다달러가 강세로 전환, 인플레이션이 다소 수그러지면 금리는 다시 내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한 금리의 전망은 불가능하다. 요즈음에는 아무리 훌륭한 경제학자 일지라도 금리의 장기전망은 가능하나, 단기전망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고금리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금리가 내릴 때까지 모든 투자를 중지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경제행동은 다음 두가지로 구분된다. 그중 하나는 소위 투기애호가(Risk lover)들이다. 이 사람들은 축재를 하기 위해 위험을 부담하고자 선택한 방법이었다고 한다. 또한 1930년대 공황때에는 주식을 매입한 사람이 50년 이후에 다른 어느 투자방법보다 많은 이익을 보았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현상이라면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위험을 너무 크게 부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안정속에서 착실한 소득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 아닌가 생각든다.

내일은 온타리오하이드로의 경제연구관인 김상용경제학박사가 불황을 캐나다 정부측 입장에서 살펴본다

미화34만 달러든 주인없는 가방
검찰 여권위조단 수사

(서울15일=연합)김포공항에서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미화34만달러에 관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여권위조단과 불법 이민브로커들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일 김포공항 세관은 정밀수색기를 거친 수트케이스 두개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가방을 열었다. 문제의 가방에는 천달러짜리 여행자수표 87장, 백달러짜리 지폐 2,525장 50달러 지폐 10장이 들어있었다.

검찰은 15일 가방에 든 미화를 바꾸기 위해 사용한 여권 103개가 위조였고, 여행자수표는 싸인이 불확실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외환은행에서 6만달러의 여행자수표를 바꾸어준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이영진"이 가공인물이었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외환은행직원들도 소환했다.

◀바로잡음▶

본보 통권호수가 바뀌었기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지난 6월11일자(금)는 No.848이 아니고, No.847이고, 12일자(토)는 No.849가 아니고 No.848이며, 6월14일자(월)는 No.850이 아니라 No.849가 맞습니다.

독자의 광장안내

토론토 한국일보는 독자의 성원을 거름삼아 자라는 독자 여러분의 신문입니다.

〈독자의 광장〉은 문자 그대로 독자들의 대화의 광장·의견의 광장·제언의 광장이 되기 위한 컬럼입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2백자 원고지 3매이내로 주소·성명과 함께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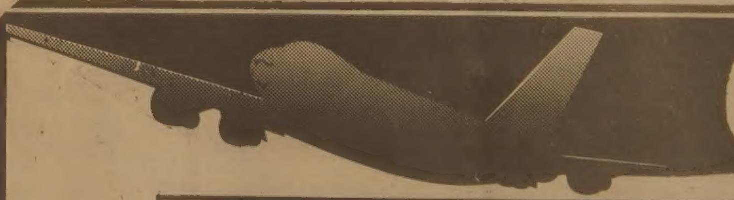
한글교육과 한국인의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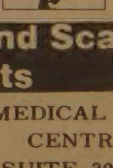
이상의 주제로 다음과 같이 제3회 한맘교육 강좌를 개최하오니 한국문화 보존에 관심이 있는 교민여러분과 한국어 교육을 지도하시는 교사및 학부형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다 음-

●강 연:
1.한국인의 얼: 유재신 박사
(토론토대학교 동양학교수)
2.한국문학과 한국어교육: 박동규 박사
(한국문학평론가, 서울대학교교수, 현재 토론토대학교 교환교수)
3.가정에서 한글읽기와 글짓기: 이석현 선생
(한국아동문학가, 한국일보토론토편집인)
4.복합문화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 조성준 선생
(한인교육연구회 회장, 교육사회사업가)

토의 : 사회 구상회박사
일시 : 1982년6월19일(토)오전10시~오후1시30분
장소 : 한맘문화회관 439 DUNDAS ST. E. TOR
(PARLIAMENT ST. AND DUNDAS ST. E.)
참고 : 다과와 특별프로가 마련되어 있음.
주최 : 한인교육연구회 회장 조성준
(☎ 293-7801)
한맘한글학교 교장 허영식(☎ 444-4987)
후원 : 한인장학재단


IATA
특별할인봉사
○ 서울단체 매일출발
○ 방문초청 특별요금
이제는 친구및 3촌이상 친척까지 초청의 문호개방.
단 : 항공료와 체재비 부담조건
○ 구라파 9개국관광 20일간 $1,600
출발 82.7.22
○ 국내, 국제항공표 일체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김창범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R) 492-7525

보십시요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바바라」에 물으세요

이것이 북미생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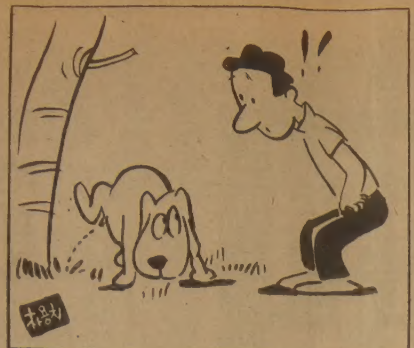
◆필자 : 바바라여사

○문: 남편이 근무하는 직장의 캐나다인이 파티를 열어 남편과 함께 갔었읍니다. 그런데 나는 그 캐나다인의 옆에있는 여성이 당연히 그의 부인인줄 알고 「언제 결혼했느냐」「아이들은 몇이냐」등등을 물어봤읍니다. 그때 그여성이 부인이 아니라 동거하는 걸프렌드라는 것을 알고는 내가 물어본 질문에 무척 당황했읍니다. 남편친구들이 걸프렌드를 소개할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미시사가 정〉

●답: 귀하가 당황한 것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최근 10여년동안 무척 변했어요. 옛날에는 어색하던 도의적인 일들이 요즈음 보편화된 일들이 많습니다. 남녀간의 동거관계만해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동거여인이 점잖은 파티의 호스티스(집안주인역)가 될 수가 없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가서 10여년 살고 돌아와보니 미국의 도의개념도 많이 달라졌더군요.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 파티에 참석할때는 호스트(남자주인)가 My Wife라는 단어를 쓰는가 안쓰는가 유심히 들어보시면 부런문제는 별로 신경쓰지 마십시오. 두사람의 관계를 깊이 캐묻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파티갈땐 초청자 背景알고 對話를

同僚가 흡연신경쓰면…환기신경 쓰고 화분이라도

인인지 아닌지 알수 있읍니다. 더 좋은 것은 귀하의 남편에게 미리 친구의 배경을 간단하게 물어보십시오. 한국여성들은 남편이 어느집에 가자고 하면 아무 질문없이 따라나서는 경향이 있는데 상대방의 배경을 조금은 알아두는것이 파티대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정식결혼한 관계가 아니면 일기나 스포츠, 요리, 영화이야기등을 화제로 끄집어 내십시오. 아이들이 없는 집에 가서는 아이들 얘기를 화제로 올려 놓지 마십시오. 상대방에 마음의 상처를 주는 수가 있읍니다.

미국인들이 파티에서 날씨등을 화제로 올려 대화가 좀 싱거운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상대방의 개인생활을 얘기하다 실례를 할까봐 피하기위한 것입니다. 싱거운것 같지만 실수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몇번 try해 보십시오. 효과가 있읍니다.

○문: 저는 비교적 큰 직장의 매니저로 있읍니다. 그런데 내 옆자리에 있는 두 캐나다인여성이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에 신경을 쓰는 눈치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않으면 일에 열중할수 없어 담배를 안 피울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토론토다운타운 김〉

●답: 먼저 귀하의 사무실이 환기장치가 잘되어 있는가를 다시한번 체크해보십시오. 환기가 잘되면 관계없읍니다.

두번째로는 화분같은 것을 사무실에 들여놓으시면 담배연기가 좀 줄어듭니다. 또 마켓에 가면 담배연기(생담배 타는 연기)를 줄이는 특수 잿털이가 나와 있더군요.

세번째로는 창문을 좀 열어놓거나 귀하의 자리를 Smoker들이 있는 쪽으로 옮기십시오.

마지막 방법(이것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은 이번기회에 담배를 한번 끊어 보십시오. 귀하와 귀하의 가족을 위해서도 더 할수없으리만큼 좋은 일입니다.

○문: 작은 일인것 같지만 저에게는 신경이 쓰여지는 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웃집 개가 우리집 정원에 자주 들어와 어떤때는 제가 몹시 놀란적도 있읍니다. 그런데 개주인은 그걸 알면서도 계속 풀어 놓고 있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돈밀즈 박〉

●답: 개주인에게 직접 얘기하십시오. 만약 그래도 계속 개를 풀어 놓으면 마켓에 가서 개를 쫓는 특수약을 잔디에 뿌려 놓으십시오(예를들면 「Pet No」라고 쓴 약들이 있읍니다). 그것도 효과가 없다면 참는수 밖에 없읍니다.

북미생활의 에티켓이나 일상생활의 작은 궁금증을 풀어주는 『바바라에 물으세요』를 본보 미주본사의 협조로 주1회씩 연재한다.

상담은 LA·한국일보의 영문판 담당기자인 바바라·엥커(Mrs. Barbara Enger)씨가 맡는다.

영어학석사인 엥커여사는 한국에 4년간 머물면서 외대, 성균관대, 동아대등에서 영어강사직을 맡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습성, 모르는 점등을 잘 파악하고 있다.

특히 우리들이 평소 알고 싶었던 점, 갑갑했던 점, 혼동됐던 점등을 잘 설명해 줄 것으로 큰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많은 질문을 바란다.(편집자주)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7>

어떤 情事

선글라스의 사나이 뜨거운 시선이…

밤이 되었다.

낮의 열기는 밤의어둠속으로 스며 들어 어느새 농도 짙은 음색으로 변해 있었다.

저녁을 실컷 먹고난 문자 일행은 H호텔지하에 자리잡고있는 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갔다.

문자는 사냥터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사냥꾼이 표적을 노리듯 그녀는 재빨리 실내를 훑어보았다.

넓은 홀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번쩍거리는 사이키조명아래 미친듯 흔들어대는 광란의 무리들 사이로 뛰어나게 드러나보이는 사나이가 있었다. 선글라스를 끼고있어서 맹인이 아닌가하고 생각했지만 가만 보니 낮에 해변에서 본 그 사나이였다. 문자와 명자는 플로어에가까운쪽에자리잡고 앉았다. 거기서는 선글라스되 춤추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었다. 그 사나이는 낮에 함께 있었던 중년부인과 춤을 추고 있었다. 선글라스는 헌칠한 키에 춤솜씨가 뛰어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었다.

『저거 봐.』

문자는 명자의 옆구리를 툭 질렀다.

『응, 나도 봤어.』

『저것봐, 이 호텔에 투숙하고있는 모양이지?』

『응, 그런가 봐.』

『저여자, 춤추는 것좀 봐. 정말 못봐주겠어.』

『남자는 기막히게 춘다, 얘.』

『한번 같이 춰봐라.』

『내가?』

명자는 눈을 크게 떠보이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네가 춰야지.』

문자는 갑자코 선글라스를 바라보았다. 잠시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선글라스가 문자 일행이 앉아있는 테이블쪽으로 다가왔다. 문자는 그 사나이의 시선을 붙잡아보려고 애를 썼다. 마침내 선글라스가 고개를 숙여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문자는 가슴을 내밀면서 활활 타오르는 눈으로 뚫어지게 그를 쳐다보았다. 선글라스에 가려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충분히 알 수가 있었다. 그들은 불이 붙은듯 한동안 서로 시선을 뗄줄 몰랐다.

이윽고 그가 저쪽으로 가자 명자가 신이 나서 떠벌였다.

『그 남자가 널 쳐다봤어. 뚫어지게 말이야.』

『서로 쳐다본거야.』

문자는 느긋하게 담배에 불을 붙였다.

『너, 그 남자 쳐다본게 곡 요부같더라. 아주 요염하던데….』

『도발적으로 보이게한거야. 이제 보라구. 이쪽으로 올거야.』

『이심전심이라고 그남자도 너한테서 필 느낀 모양이지?』

『그런가 봐.』

『잘해봐라. 내가 방해가 된다싶으면 꺼져줄께.』

『뭐, 그럴 필요없어. 2대1로 하지 뭐.』

『2대1이라니?』

『남자 하나에 여자 둘. 그룹섹스라고해도 좋아.』

『어머머, 이애가정말 미쳤어.』

그들은 고집고, 깔깔대고, 그러다가 맥주를 꿀꺽꿀꺽 들이켰다.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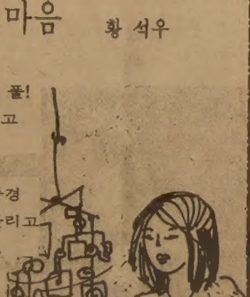
朴 男 그림

소녀의 마음

황 석우

소녀의 마음은 봄잔디 풀!
그는 밟으면 오크러지고
그는 불때면 타진다.

소녀의 마음은 유리 풍경
그는 바람 부딪치면 울리고
그는 내던지면 깨진다.



한국관

연무 중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단체손님 환영. ● 염가로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三國志 397

글·高羽榮·그림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제1회 북미태권도 초청 챔피언·쉽

일 시 : 6월19일(토)

장 소 : 에토비콕 올림피움(590 RATHBURN RD)

☎626-4154

예선 11 : 30A.M, 결승 7 : 00P.M(연무시범)

입장료 : 어른 5불, 어린이 15살미만 3불

이번 대회는 호구를 사용한 세계연맹 규정에 의한 대회입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주최 : 박주삼태권도장 문의처 : 박주삼도장

주소 : 814 BLOOR ST. W. 전화 : 535-4000

11일 下午 7時(한국시간) 期해 이스라엘 休戰선언

◇白旗들고 거리지나는 레바논人들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거점 시돈에서 계속 시가전이 벌어지고있는가운데 일단의 레바논인들이 헝겊으로 급조한 일시백기를 흔들며 거리를 지나고 있다. 【시돈 (레바논) 10日 AP電送=聯合】

이軍 베이루트市 外廓에 집결 "시리아 攻擊안하면 撤收보장"

【예루살렘11日 AP=聯合】 이스라엘정부는 11일 하오7시(한국시간)를期해 레바논에서 휴전한다는데 동의했다고 이스라엘 관리들이 밝혔다. 이날 내각코뮈니케는 『정부는 11일낮12시(한국시간하오7시)를기해 모든 단위부대에 휴전하도록 지시했다. 이 시간부터 이스라엘군은 공격을 받지않는한 레바논 전전선에서 더이상 전투행위를 하지않을것이다』고 밝혔다.

【베이루트10日AP合=聯合】 레바논에서 연5일째 전면공세를 계속해온 이스라엘은 10일 시리아와의 공중전에서 전투기25대를 격추시키고 지상군을 수도 베이루트시경계선에 집결시켜 進入을 위협하는한편 시리아軍의 이스라엘군 不攻擊을 전제로 휴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和戰양면공세를 취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시리아軍이 對이스라엘공격을 중지한다면 휴전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했으나 하페즈·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이제 이스라엘과의대결이외에는 선택의여지가없다고 일축했다.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軍에 보낸 동전메시지를 통해 『레바논을 지배하려는 이스라엘의 시도에는 결코 굴복할수없다. 승리가 아니면 순교를 택함으로써 적을 격파하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TV는 전략요충 베카계곡과 베카계곡북쪽 베이루트-다마스커스 고속도로부근등 2개지역에서 이날 양국군의 탱크와 보병이 대거 동원된 개전이래 가장 격렬한 지상전투가 있었으며 이스라엘군은 베카계곡 상공에서도 공중전을 벌여 미그전투기 25대와 헬리콥터 3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베카상공중전에서 단1대의 전투기와 헬리콥터 1대를 상실했을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스라엘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리아의 미그전투기 61대가 격추된 셈이다.

이스라엘군사령관은 더 이상의 저항은 자살행위와같은 것이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게릴라소탕을 위해 현재 베이루트시 외곽에도달한 지상병력과 海·空軍力을동원, 베이루트시로 침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리아軍의 안전한 베이루트철수를 보장하도록 2시간의 여유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軍은 또 전폭기를 동원, 베이루트국제공항과 팔레스타인난민수용소를 폭격하는 한편 한 대사관건물에 피해를 입혔으며 시리아軍의 유일한 퇴각로가 될 베이루트-다마스커스고속도로를 압박하고있다.

이란 機甲部隊파견 이라크에 3개道路 제공요청

【런던10日路透=聯合】 이란은 10일밤 이라크의 휴전제의에 대한 수락조건으로 이스라엘과 싸우고있는 시리아를 돕기위해 기갑부대를 파견할수있도록 이라크가 3개통로를 제공해줄것을 요청했다.

이날밤 BBC가 청취한 테헤란방송에 따르면 이같은요구는 이라크의 휴전제의에 따라 이란이 20개월에 걸친 對이라크戰의 종식을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것으로 보인다.

테헤란 방송은 『이란은 이라크를 거치지 않고는 이스라엘군쪽으로 나아갈수 없으므로 이라크는 우리가 시리아에 기갑부대로 이루어진 원군을 파견할수 있게끔 통로를 내주어야한다』면서 이같은 이란병력의 이라크영토 통과요구는 곧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새로운 평화요청이라는 하세미·라프산자니 국민의회의장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英軍 이틀새 千명戰死 포클랜드島 제2교두보 구축失敗

【부에노스아이레스11日AP聯合=聯合】 지난48시간사이에 영국군 약1천명이 東포클랜드섬에서 전사했다고 이곳의 믿을만한 소식통이 10일 말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9일 영국군은 포트스탠리남쪽 피츠로이해협에서 상당한 사상자를 낸데이어 포트스탠리 서쪽20km지점에 있는 켄트산에서 병력을철수하는동안 많은희생자를 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아르헨군사소식통은 아르헨군의 압력을받아 영국군이 켄트산에서 철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소식통은 영국군이 東포클랜드섬에 제2의 교두보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실패로돌아갔으며 이 작전에서 영국군 4백명이 전사했고 많은 전쟁물자를 잃었다고 밝혔다.

아르헨機, 上陸艇 3척 파괴 英側도「悲劇的被害」를 시인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10日路透=聯合】 아르헨티나군사정부는 10일 자국공군기들이 지난 8일 포클랜드(말비나스)군도수도 포트스탠리인근해안에 상륙하려는 영국군을 공격, 최소한 상륙정3척을 파괴하고 병력다수를 사살했다고 발표했으며 영국정부도 영국군이 이 상륙기도에서「비극적 피해」를 입었다고 시인했다.

존·노트 英국방상은 의회에 포클랜드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영국군이 지난8일 포클랜드 모처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하던중 아르헨티나의 공습을 받아 「비극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노트 국방상은 그러나 적에게 이용당할것을 감안해 이 작전에서의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할수 없다고 말했는데 국방성 소식통들은 영국군이 이작전에서 포클랜드戰 개전이래 최악의 하나로 기록될수있는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 공습에 미라지및 스카이호크등 17대이상의 아르헨티나기가 참가했다고 전하고 영국은 상륙정 4척및 상당수의 병사를 잃은반면 아르헨티나도 최소한 11대의 전투기를 파괴당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다.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 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민영숙
(B)368-7961 (R)690-5217

3黨「青瓦臺회담」對策부산

民正 民心所在전달위해 黨內 의견취합
民韓 在野元老와 접촉 時局수습안 청취
국민 政治회복·經濟활성화등 促求키로

民正 民韓 국민등 3黨은 내주초에있을 3黨代表의 青瓦臺회담을 앞두고 간부회의등을 잇달아열고 對策마련을 서두르고있다. 與黨인 民正黨은 주로 野黨측의 주장을경청한다는 기본입장이지만 民正黨이 취합한 民心의 所在를 전달하기위해 黨內의견을종합중이고 民韓黨은 黨內의 의견뿐아니라 在野元老들을 접촉, 時局수습에관한 의견청취에 나섰으며 국민당은 11일 黨務會議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을 黨3役에게 一任키로했다. 한편 民正黨은 11일하오 南在斗총재비서실장을 통해 3黨代表의 青瓦臺면담신청을 전달하고 이에따른 구체적인 日程조정을 협의했다.

〈民正黨〉 12일과 14일 黨職者회의와 중앙執行위원회를 열고 黨이제시할 시국수습방안과 野黨측의 요구에 대한 對策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李載灐대표위원은 11일『이번 회담은 民正黨보다 民韓 국민당이 의견을 잘 다듬어 모처럼의 기회를 有效하게잘 活用해야 할것』이라면서『青瓦臺회담에서 제시할 3黨의 공통의견도 있을수있으나 이에앞서 각黨이 충분히 독자적인 의견을 개진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정부는 이번기회에 국민의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國政에반영한다는 방향에서 수습책을내면 국민도 정부의 성의를인정하게되고 時局수습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民韓黨〉 青瓦臺회담에앞서 在野元老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아래 柳致松총재는 11일상오 尹潽善전대통령을 安國洞자택으로방문, 시국수습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柳총재는『이날 요담에서는 시국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매우중요한 대목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자리에서는 李哲熙·張玲子사건에따른 時局수습방안외에 정치被규제자 解禁문제등도 거론되었는데 尹전대통령은 舊정권이래 아직도 묶여있는 사람들에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이번 청와대회담에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있는 얘기가 나와야한다』는등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했다고 柳총재가 전했다.

柳총재는이날 尹전 대통령면담에이어 俞鎭午 前신민당총재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俞전총재의 사정으로 계획을 늦추고 12일에는 다른 在野元老들을 만날 계획이다.

한편 柳총재는 자신이 청와대회담에서 제기할 당초의 腹案외에 당내의견을 참고하기위해 劉沃祐부총재, 林鍾基총무, 高在清, 辛相佑, 吳洪錫, 許京萬, 金元基, 孫世一, 洪思德의원등으로부터 개인적인 의견을 들었다.

이들 의원들은 柳총재에게 ▲國政조사권발동등 국회활성화▲언론활성화▲선거법개정▲지방자치제실시▲景氣활성화방안▲경제정책의修正▲진정한 국민總和방안등 갖가지 의견을 제시한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당〉 11일 상오 당무회의에서 청와대 3黨대표 회담에서 金鍾哲총재가 제시할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회의는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大型사건들은 도덕의 실추, 사회가치기준의 붕괴, 국가경영의 未熟등 구조적病理현상들이 露呈된것으로 분석, 時局수습의 대전제로 정치회복과 경제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정이긴요하다는데의견을모았다.

이어회의는 시국안정을 위해▲이번사건의 진상을 중심으로 현시국에대한 최고통치자의 직접적인 見解闡明이필요하고▲총리, 부총리, 재무, 법무장관의 책임규명과 정치권력의 도덕성 재정립이필요하다는데의견을모으고 이를위해▲國政조사권발동▲대통령의 超黨的국정운영▲국회의권능회복▲지방자치제실시▲언론활성화▲정당정치의정상화등을 촉구키로했다.

회의는 또 청와대회담에서 黨이제시할 景氣활성화대책등도 마련했는데 주요내용은▲재정긴축과 非常實行예산의편성▲기업의 擔稅완화와 內需진작▲농촌구매력향상▲중소기업 지원▲건설경기의부양▲정부·정당·경제계·학계·언론및 법조계인사들로 비상경제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할것등이다.

文公部 弘調실장 李庚植씨를 발령

정부는 11일 문공부弘報調整室長(1급상당)에 李庚植 홍보조정실기획관을 발령했다.

前홍보조정실장 趙成天씨는 서울신문專務로 내정됐다.

◇李실장略歷▲慶北義城출신·46세▲서울大文理大卒▲東亞日報기자▲駐뉴욕공보관▲문공부외신담당관▲南北當局者實務회담대변인▲文公部해외공보관▲弘調室보도담당관·企劃官

空軍 參謀次長에 金仁基 中將임명

정부는 11일 공군참모차장에 金仁基중장(사진)을 임명 발령했다.

◇약력▲安東출신·49세▲空士3기▲국방대학원수료▲[illegible]▲인사참모부장▲작전사령관

社會漫評

심상치는 않군…

地平線

한국의 부모들은 어떤 아이를 원할까?―아직 이렇다할 조사결과는 없다해도 이런질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울건없다. 아마도 공부를 잘해서 1류대학 인기학과에 들어갈 아이가 가장많을지도 모른다. 고등고시합격자를 원하는 부모가 많을지도모른다. 어쨌든 출세 잘하는 아이면 될것이다. 그것보다는 돈을 여수로 잘버는 아이일지도 모른다. ▼자식이라고 뜻대로 되는건 아니라는게 부모들의 전통적인 푸념이지만 사실은 뜻대로되는 세상이 돼가고있다. 지난79년 로버트·클라크 그레이엄이라는 미국의 실업가가「정자은행」을 만든것도 그런부모들의 소원을풀어주기위해서였다. 노벨상수상자를 포함한 과학자20여명의 정액을받아 원하는 여자들에게 나눠 준다는 것이다. ▼그레이엄의 정자 은행에서 이름난 수학자의 씨를 받은 여자가 지난 4월 딸아이를 낳았다고 알려 졌었다. 아기엄마도 천재급의 머리를 가졌다니까 이계집아이는 뛰어난 천재가 될것이라는 얘기다. 이것은 남자의 정액을 받아 인공수정하는 방법이다. 인공수정은 그러나 이제는 상당히 고전적인 기술이다. 예를들어 영국에선 인공수정아기가 올해에 약 2천5백명이나 태어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에는 16개의 정자은행이 있다. 좀 우스운 얘기같지만 정액을 제공한 남자들은 대부분 젊은 소방관들이라고 한다. 영국의 경우엔 대부분 의과대학생들이다. 미국의 자이트헤스사는 세계각국의 수십개인종의 씨를받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프리카에 수출하고 있다. 한해동안에 10만회분의 씨가 팔리고있는데 정액제공자들은 2백명정도라고 한다. ▼인공수정이 최근엔 시험관 아기가 있다. 한세대전의 기술이라면 유리접시위에서 여자의 난소서 빼낸 난자와 남자의 정액을 섞어서 수정시킨 다음, 5~6일동안 시험관속에서 배양한다. 여자의 자궁속에서와 똑같은 상태에서 난자가 64개의 세포로 불때까지 길러서, 산모의 자궁속에 넣어준다. 시험관아기는 현재 세계각국에 21명이 태어났다. ▼시험관아기는 올해안에 1백명쯤 더 태어날 예정이다. 미국에 사는 우리교포가 22번째 시험관 아기의 부모가 됐다고한다. 이경우엔 부모가 결혼한 부부이며 다만 불임증때문에 시험관의 신세를 졌을뿐이다. 그러나 시험관아기시대가 우리 곁에 다가서고있는것은 틀림없다. 모두가 1류대학에 들어가고 모두가 출세하고, 돈 벌자고 덤비는 세상이 될수도 있다. 그것이 유토피어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할것같다.

한국일보
우리의 主張은 韓國人의 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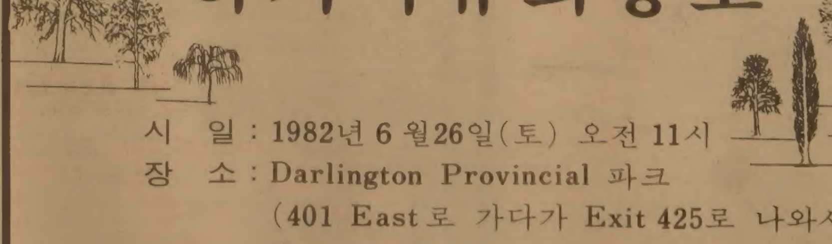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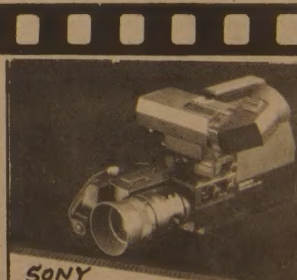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동문회
하기야유회공고



시 일 : 1982년 6 월26일(토) 오전 11시
장 소 : Darlington Provincial 파크
(401 East로 가다가 Exit 425로 나와서 Courtice Rd.)
연락처 : ☎ 844-8052 정
☎ 481-9373 김

카나다 동대동문회장
정관풍

회갑 · 결혼 · 돐사진



현대문명의 이기, 비데오로 모든행사
하나하나를 기록할 수 있읍니다.

사진의전당
새한칼라현상소 VIDEO부
630 BLOOR ST. W. 535-7772

失陷임박… 砲煙의베이루트엔 줄이은 避亂대열이…

◇戰爭중의 목욕 전쟁중 잠시 맛보는 휴식. 한 이스라엘병사가 레바논 남부 리바예티市값에서 목욕중 총에 물이 들어갈까봐 높이 쳐들고 있다. 【AP】

숨가쁜 이·시리아戰 그現場

大使官員들 피신

○…이스라엘군의폭격이 시작된베이루트市에서는10일 겁에질린 주민들이 서둘러 도시를빠져나가고 있으며 남아있는주민들도 지하대피소로 피신하는등 전쟁의 공포에 휩싸여있다.

베이루트시 남부외곽지역에는 이스라엘 전투기의 폭격이계속되고 폭음이 울리는가운데 수백명의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이 시가지를 뛰어다니며 공포를쏘고 빈 주택들을장악, 공포분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베이루트 서부주민들은 저마다 피난보따리를 챙겨 親이스라엘 기독교민병대 장악하에있는 東베이루트로 향하고있다.

東베이루트로 가는 길목은 피난민을 실은 자동차 행렬로 메워져있고 검문소에서는 기독교 민병대소속 병사들이 수시간씩 피난차량을 세워놓고 팔레스타인게릴라가 섞여있는지 철저하게 검문하고 있다.

베이루트시 서부지역의 상점들은 대부분 철시했고 공원과 공터에는 南部레바논에서 피난온 팔레스타인 난민들로 가득차 있다.

레바논중앙은행은 換錢을 중지했고 일반은행들도 달러나 파운드貨로 바꾸려는 고객들에게 자국화폐만을 교환해주고있다.

베이루트에 거주하고있는 미국·영국·캐나다등대부분의 서방국가 주민들은 이미 대사관으로부터 통고를받고 東베이루트로 피신했고 소련대사관관리와 직원들도 해상을통해 터키로 탈출한것으로 알려졌다.

팔게릴라、市街서 空砲
관광객에 무차별 爆擊
폭음속 전률하는 住民들…시리아機 23臺墜落

民間 1만명死傷

○…이스라엘군의 레바논침공으로 지난 7일동안 1만여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했다고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10일 발표했다.

PLO는 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 적십자발표를 인용, 이같이 말하고 대부분의 사상자는 이스라엘측의 『무차별포격과 폭격』때문이라고 밝혔다.

관광객 57명死亡

○…이스라엘空軍機들은 10일 레바논으로부터 국경을 넘어 시리아로 들어오던 관광객들에게 폭격을가해 57명을죽이고 75명을부상시켰다고 시리아의 관영 SANA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사망자들이 터키人14명을 포함하여 여러나라로부터 온 관광객들이었다고 밝히면서 부상자들은 시리아국내와 각급병원에 후송됐다고 덧붙였다.

毒묻힌 연필投下

○…이스라엘공군기들이 지난 9일 西베이루트를공습할 때 유독한 화학물질이 칠해진 연필들을 투하했다고 팔레스타인 레바논 연합군의 정통한 소식통들이 10일 주장했다.

이 소식통들은 일부 어린이들을 포함, 20명이 이 연필을 만진후 중독되었다고 말하고 이 연필의 샘플을 베이루트소재 아카데미병원에 보내 독극물의 분석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空中戰 최대戰果

○…남부 레바논에 전면 침공, 팔레스타인 게릴라섬멸전을 펴고 있는 이스라엘軍은 단하루의 空中戰에서 시리아 미그전투기 23대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함으로써 空中戰사상 가장획기적인 기록을남길 공산이 크다고 9일 한空中戰史家가 말했다.

그는 과거자료를 예로 들면서 제4차 중동전에서는 단 하루에 13대가, 월남전에서는 월맹미그기 18대가, 그리고 한국동란에서는 약 10대가 격추된것이 최고기록이라면서 제2차세계대전에서도 최대기록이 23대를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美艦隊、근해配置 美國人 철수위해

○…레바논전투가 수도베이루트까지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있는 가운데 航母 존·F·케네디號를 앞세운 美해군 기동함대가 레바논을 국을 원하는 미국인들을 철수시키기위해 베이루트 근해에 배치돼있다고 美국방성 관리들이 10일 말했다.

이스라엘이 優勢 全面戰 벌일경우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전면전을 벌일경우 공군력과 예비군동원면에서 시리아측보다 더 우세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권위있는 영국전략문제 연구소의 81~82년도 국제군사력균형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군사력비교는 별표와같다.

	이스라엘	시리아
총병력	172,000 (24시간내40만 동원가능)	222,500
예비군	504,000	102,500
육군	135,000	170,000 (레바논주둔군 3만포함)
공군	28,000	50,000
해군	9,000	2,500
중형탱크	3,500	3,700
전투용항공기 (이번전투이전상황)	602 (예비기 150대 포함)	448 (약간의 예비기포함)
전투용헬기	32	16
함정	잠수함 3척, 코르베트함 2척, 쾌속공격함 22척, 연안초계정 40척, 상륙주정 9척	프리기트 2척, 쾌속공격함 26척, 원양초계정 1척, 소해정 3척

南예멘, 레바논派兵 리비아·알제리서도

○…南예멘은 이스라엘 침공군과 싸우고있는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좌파세력을 돕기위해 군대를 레바논에 파병했다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한 간부가 10일 말했다.

印度의 PTI통신은 뉴델리주재 PLO대표부의 자밀·하자즈참사관의 말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리비아와 알제리도 번전투에 적극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作戰目標이미達成 駐美이大使會見서

○…미국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10일 레바논 영내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목적은 달성됐으며 따라서 시리아軍이 전투를 중지할경우 전쟁은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軍將星등 戰死 팔게릴라 戰鬪서

○…이스라엘군참모차장을 역임한 예쿠티엘·아담장군이 10일 남부레바논에서 벌어진 팔레스타인 게릴들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이스라엘군이 11일발표했다.

아라파트 亡命설 PLO代表 一蹴

○…야세르·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議長이 프랑스에 정치적망명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들은 전혀 근거없는것이라고 제네바에 머물고있는 다우드·바라카트 유엔駐在PLO대표가 10일 말했다. 【외신종합】

레바논事態 궁지에 몰린 美國

國際焦點

「平和중재」손떼야 할판 "이庇護國이다"비난도
「親이政府수립」意圖에 美 안절부절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군 분쇄라는 自衛的 성격을 넘어 레바논을 두쪽으로갈라 남쪽에 親이스라엘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침략적의도를 드러내자 이에대해 가장 안절부절못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캠프데이비드協定과성이스라엘군의 시나이반도 철군으로「불안속의 小康상태」를지켜온 중동평화가 자칫하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판국이다.

이렇게된다면 미국은 이제까지 중동에서 누려온 평화중재자의 역할에서 손을떼야만되고 호전적 침략자인 이스라엘의 비호국이라는 비난을 면치못하게 된다.

11일 이스라엘을 방문할계획으로 있던 헤이그 美국무장관은 그의 방문이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을 묵인한다는 인상을 줄까봐 서둘러 계획을 취소해버렸다.

지난6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침공을 개시했을때 레이건 대통령은 파리에서 베르사유 서방7개국 경제정상회담에 참가하고있었다.

포클랜드문제를 둘러싼 英-아르헨티나 戰爭에서 영국에 화해를종용하던 레이건은 이스라엘의 돌연한 레바논침공에경악, 영국에 할말을 잃어야만했다.

레이건 수행진들의 얘기로는 레이건은 베르사유회담 보다는 레바논사태에대해 더 고심했다고 전하고 있다.

레바논침공이후의 베르사유회담에는 리건재무장관등이 대리로 참석했음도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침공시기를 베르사유정상회담에 일부러 맞춘듯한 느낌마저 준다.

세계뉴스의 초점이 베르사유회담과 포클랜드에 쏠려있어 이스라엘의 침략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것임을 계산에 넣었을지도 모른다.

레바논에 강력한 중앙집권정부를 양성시켜 이스라엘과 레바논간의 현상유지를 꾀하려했던 미국의 중동정책이 바로 정면으로 도전받게 된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의 의도대로 레바논이 남북으로갈라져 북쪽에 시리아지원을 받는 사실상의 팔레스타인정부가 서게된다면 이정부는 소련과긴밀한 관계를 갖게 될게 뻔하다.

이경우 소련은 이집트의脫蘇정책으로 중동에서 쓴잔을 마신이래 중동에의 재진출을 노릴수있는 捲土重來의 유력한발판을 갖게된다.

소련과 시리아는 80년 相互우호조약을 체결했다.

이 우호조약에는 어느일방이 제삼자의 침략을 받을경우 즉각 상호협의할 것을 규정하는 방위조항이 포함되어있지만 의무적 군사동개입의 규정은 없다.

만약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맞붙을경우 소련이 이 조약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사태의 관건이 된다.

소련이 이방위조항을 군사개입으로 해석, 對이스라엘戰에 參戰할 경우 中東戰은 국제戰이 돼버릴 것이다.

◇아라파트 사진 거꾸로 든 이兵士 남부 레바논의 티레 마을을 점령한 이스라엘軍 병사들이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야세르·아라파트의장의 사진을 거꾸로 들고 장난을 치고있다. 【이스라엘 점령 레바논UPI電送=聯合】

중동에서의砲煙이 미국에가져다줄이익은아무것도없다.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사태를 막후 수습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어느때보다도 부산하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철군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베긴수상에게 보낸데 이어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및 아랍권의 강자 파이잘 사우디아라비아왕과도 활발한 막후 접촉을 가졌다.

헤이그 국무장관은 도브리닌 駐美소련대사와 전화회담을 했고 중동을 순방중이던 하비브特使는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두차례나 회담을 가졌다.

또 브레즈네프도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레바논사태에 대해 긴급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은 지난4월 이스라엘이 순순히 시나이반도 점령지에서 철수하자 한숨을 돌릴수 있었으나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으로 인해 또 하나의 고비를 중동에서 맞고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앞으로 어떤방향으로 가든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총을 거두고 철수하지않는한 미국은 얼굴이 하나도 없는 입장이다. 【李炳圭 기자】

◇파도즐기는 水泳服 모델 모델 니토·로트재리게수양이 캘리포니아의 하이타이드社에서 새로 내놓은 투피스 수영복을 선보일겸 플로리다의 한 바닷가에서 파도를 즐기고있다. 【스튜어트(美플로리다州) AP航空便=聯合】

對이란休戰준수
이라크宣言, "어떠한 敵對행위도않겠다"

【베이루트10日UPI聯合】 이라크는 9일 對이란戰의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10일새벽(현지시간)부터 역시 일방적으로 이를 준수하기 시작했다고 10일 이라크 최고사령부가 발표했다.

이날 관영 INA통신으로 보도된 최고사령부의 코뮈니케는 『10일 未明현재 우리들의 군대는 발포나 어떠한 적대적인 군사행위도 중단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결정은 사담·후세인 대통령이 지난9일 이라크군수뇌들과 장시간 협의한후 직접21개월에 걸친 페르시아전쟁에 종지부를 찍은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뮈니케는 이어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공격에 언급, 이미 레바논에 파병의사를밝힌 이란에 대해 對이스라엘통일 회교전선을 형성하자고 촉구했다.

蘇·佛공동우주비행 來28일, 발신지集結

【모스크바10日UPI=聯合】소련·프랑스간의 공동우주비행계획에 참가하고있는 소련및 프랑스 우주비행사들은 오는 25일 시작될 공동우주비행을 앞두고 중앙아시아의 바이코누르발사지지에 집결했다.

소유즈T6號는 소련우주비행사 2명과 프랑스우주비행사 장·루·크레티앙을 태우고 25일 0시 24분(이하 韓國시간) 바이코누르 발사기지를출발, 다음달2일하오22시16분지구로귀환한다.

소유즈 T6號는 소련인우주비행사 2명을 태우고 지구궤도에 머물고있는 소련우주정거장 살류트7號와 도킹한후 우주여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개량된 우주조리실 성능측정등 과학실험을수행한다.

크레티앙과 기타 프랑스우주관계자들은 소련 우주비행사들과 함께 약 2년동안 모스크바 인근의 우주비행센터 「별의도시」에서 강훈련을 받아왔으며 앞으로 2주동안은 신체훈련및 비행점검훈련을 받는다.

軍事·政治的단결 강화
나토頂上會談폐막 「본宣言」채택

【본10日AP聯合=聯合】제6차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은 서독사상최대의 평화시위가 벌어지고 있는가운데 10일하오3시30분(한국시간 11일상오0시30분) 나토의군사및 정치적단결강화를 선언하고 동구권과의 「실질적데탕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본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최근 나토의 신규회원국이 된 스페인을 포함, 美·英·西獨등 16개국수뇌들은 이날아침 西獨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거행된 개막식에 이어2시간 30분동안계속된비공개회담에서 ▲동맹안보체제구축 ▲나토核억지력증강 ▲軍縮협상계속등 80년대 나토최초의정책헌장성격을 띤 본선언을채택했는데 이 선언은 소련권에 대해 대화증진과함께 核무기증강의사의 포기를 촉구하는두가지목적을담고있다.

美 정보수집등에 언론인들을 이용
美CIA확인

【워싱턴9日UPI=聯合】美중앙정보국(CIA)은 9일 국내정보수집, 불리한 기사에 대한 압력행사, 그리고 다른 정보요원감시등 여러분야에서 언론인들을 정보요원으로 이용해왔음을 확인했다.

海外토픽

王朝건설 생각없다

★마르코스, 王位指名 거부

페르디난드·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딸 이미양(26)에게 내각집행위원회의 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요청한 전국마을청년기구(KB)의 결의에 대해 『나는왕조를 건설할 생각이없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앞서 지도자훈련의 일환으로 KB대표를 내각집행위원회의 업저버로 참석케할 방침이라고 밝힌바있는 마르코스 대통령은 KB총회 폐회식에서 『만약 내가 이미를 내각집행위원회의 한자리에 임명할경우, 정치왕조를 세우려한다고 오해받을 우려가있다』고 밝히면서 이미양의내각집행위 참여제의를 일축했다. 【마닐라=AP】

男百77 女40명사망

★알프스一번 등반사고

지난한햇동안 스위스의 알프스산에서 등반을 즐기다가 숨진사람이 남자1백77명 여자40명등 모두 2백17명에 달했다고 스위스산악회(CAS)가 8일 발표했다.

CAS발표에 따르면 이수치는 80년도보다 12명이 늘어나고 5년전(76년)보다는 90명이 늘어난것.

이들 사망자중 70%는 등반을하다가 숨졌으며 나머지는 스키를타다 사망한것으로 희생자의 절반은 외국인이었다. 【로잔(스위스)=AP】

英헬機추락 새때문

★회전날개속에 빨려들어

포클랜드근해에서 최근 발생한 英國해군소속 헬리콥터 1대의 추락사고로 21명의인명을 앗아간 참사는 한마리의 갈매기때문에 발생했을지 모른다는것.

이사고는 갈매기가 아니면 신천옹(信天翁)으로 보이는 바닷새한마리가 인 헬리콥터 뒷부분의 회전익속으로 빨려들어감으로써 발생했을 가능성이크다고 런던의 인디펜드·TV뉴스가보도했다. 【런던=UPI】

內外動靜

▲李鍾贊국회운영위원장은 美國에서 열리는 安保세미나에 참석하기위해 오는 7 24일께 美國을 방문한다. 李위원장은 美國방문에 이어 캐나다와 영국을 둘러보고 8월10일께 귀국할 예정이다.

▲李範俊 국회농수산위원장은 軍재직시 韓美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11일 美정부로부터 공로훈장을 받았다.

人事異動

韓國科學財團 ▲연구개발심의위원 尹德龍씨(사무총장) ▲사무총장 徐止高씨(과학기술처정책연구관) 【11日字】

本社來訪

▲朴一圭씨(釜山直轄市政新聞委員) ▲金榮斗씨(서울市警警務課長) 新任人事次

메아리

우리나라 宗敎人口는 2천9백77만2천여명으로 총인구의 77.7%에 이른다고한다(82·1·1 현재文公部집계). 그러나 각宗團이 報告하는 신앙인수를 그대로 합치면 전체인구를 훨씬 상회하고 輿論조사를 통해 『宗敎를 믿는가』고 물어보면 긍정하는 사람은 47%밖에 되지않는다. 어떻게치든 우리나라 「宗敎勢」가 가위 「세계적」이라고 할만큼 놀라운 번성상태임을 말하고 있다.

종교별신도수에 있어서는 불교가 전체종교인중 47%를 차지하고 改新敎는 약30%로서 두번째며 그다음이 유교, 가톨릭順으로 많다. 이처럼 종교인이 많고보면 宗敎와 社會, 經濟, 文化등의 관계가 整序되어 있지않은限, 때때로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게된다. 그와반대로 서로의 관계가 원활히 定立되어 있으면 宗敎는 社會발전의 촉매역을 하게되는 것이다.

얼마전 宗敎와 國家와의 관계에 대해 몇몇 論議들이 전개된 일이 있다. 그때의 일반적 주장은 宗敎와 國家는 각각 별개의 領域에 있으되 宗敎界가 갖고 있는 自然法的秩序는 國家의 實定法的秩序속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國家와 宗敎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社會의 많은 意見들이 交叉할수있었던 한 機會였다.

「政·敎 分離」

최근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개신교傳來1백돌을 기념한 사업으로 기독교인들의 의식을 조사한 방대한 「조사연구보고서」를 펴냈다. 그가운데 「敎會의 政治참여」에 대한 設問이 있는데 응답결과는 「參與안해야 한다」가 60.8%, 「참여해야 한다」가 5.2%로 나타나 있다. 나머지 33.9%는 「경우에따라 참여할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기독교신앙인중 3분의 2가량이 敎會는 政治에 관여해서 안된다는 오늘날의 「政敎分離원칙」을 수긍한것이라고 볼수있다.

11세기부터 있어온 〈콩코르다〉는 일종의 「政敎協約」이다. 敎會와 국가간의 화친을 유지하는 목적하에 서로의 권리의무를 협정으로 체결한것이었다. 프랑스는 1905년 政敎분리법을 시행하면서 콩코르다를 폐기했다. 그러나 그후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등에서는 1950년대까지도 새로운 콩코르다를 맺는일이 있었다.

우리처럼 총人口의 77%가 어떤형태든 敎를 믿는 宗敎強勢國에서는 政敎분리의 기본원칙에 선 政敎協力이라는 자기나름의 콩코르다를 모색하는것도 뜻이 있을듯 하다.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HOLE SALER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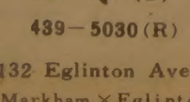
FINCH / LEON'S / MCLEVIN / SHEPPARD / MARKHAM / HWY.401

MARVIN STA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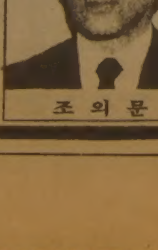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Best After Service ※Best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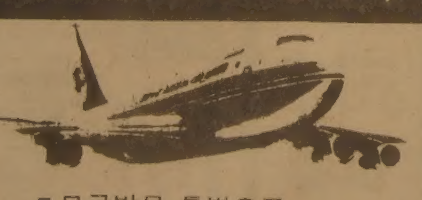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여권, VISA수속 서비스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PM～4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年中無休 MIT 학생圖書館

世界의 英才들이 모이는「지성의 角逐場」

2백座席중 한국학생이 20여명 차지
藏書보다 공부방구실 먹고자며 버텨
인근 하버드·보스턴大학생까지 遠征

特派員 노트

하루 24시간 불을끄지 않은채 학생들에게 연중무휴개방되어 있는 미국유일의 도서관이있다. 보스턴의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학생회관 도서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최대한편의를 제공하기위해 문을 닫는 날이 없는 이 도서관은 MIT가 지난65년 학생들의 교내활동과 휴식처로세운 5층 학생회관건물의 맨위층에 자리잡고 있다.

MIT 학생회관은 학생들의 과외활동과 휴식및 오락을 위한 영화관, 탁구실, 오락실, 식당, 매점등 모든 시설을 갖추고있어 MIT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 하버드, 보스턴대학의 학생들에게 까지 인기가있는데 이건물의특징은 역시 하루24시간 문이 열려있는 5층 도서관에 있다.

장서위주보다는 학생들의 공부방으로서의 구실을 더크게하고 있는 이도서관은 2백여석의 푹신한 좌석이 여유있게 배치되어있고 이좌석들은 항상 학생들로 꽉 차있다.

이도서관은 원래 MIT학생들만 사용토록 한정돼 있었으나 공부하기에 최적의장소로 정평이나자 하버드, 보스턴대학교 학생들까지 몰려들고 있어 학교당국도 이 사실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도서관에 자리잡은 학생들의 공부하는 방법 또한 특이하다. 이들은 한번 책보따리를 싸들고 도서관에 들어오면 낮에 학교강의에나 가는 시간외에는 줄곧 이곳에서 먹고 자면서 오직 책과 씨름한다.

일주일에 한두번정도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기위해 기숙사를 다녀오는일이 외출의 전부.

그래서 이들에게는 밤과 낮이 따로 없고 계절 바뀌는 것도 모른다.

책을 보다가 졸리면 의자에 쓰러져 그대로 자고 눈을 뜨면 다시 책을 들고 배가 고프면 아래층 식당을 찾는 것이 하루생활의 전부이다.

이도서관에서 3년을 이렇게 공부해왔다는 스티브군(21·MIT기계공학과3년)은『기숙사방은 룸메이트도 있고 친구들이 자주 찾아와 시간절약이 되지않아 이곳을 찾았다』며『하루종일 공부해도 학과공부를 따라가기가 쉽지않다』고 푸념했다.

이 도서관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특히 많다.

2백여 좌석중에서 약절반이 외국인 학생. 그런데 이중 20여명이 한국인학생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면 누구나 한번쯤 놀란다.

1천5백여명으로 추산되고있는 보스턴지역 한국대학생수가 아직도 전체학생수의 1%를 넘지못하고 있다는사실에 비춰보면 2백여석의도서관에 한국학생이 20여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한국인학생들은 MIT학생이 대부분이지만 하버드, 보스턴대학교학생들도적지않다. 한국학생수가이렇게많은 것은 근년 보스턴지역 각대학에 재학중인 한국학생수가 급격히 늘어난데도 원인이있지만 그보다는 이들의 무서운 학구열때문.

『한국학생들은 너나 할것없이 남에게 뒤지지않으려는 심리가 특히 강한것같아요』 하버드대학교정치학과 4년 졸업반인 高亨植군(23)은 한국학생들의 이같이강한 경쟁심이 언어장벽등 여러가지 약점을 극복하면서도 좋은성적을 올리는 원인인것같다고 말했다. 간에 해치울공부를 3~4시간 걸려 마치면서도 이들에게 뒤지지않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있다.

한국학생수가 이같이 증가하면서 MIT학생회관 도서관에는 한국신문 열람석까지 마련돼있어 보스턴지역 한국학생들의 사랑방구실을 하고 있다. 본국소식, 각대학 한국학생들의 소식등을 전부이곳에오면 들을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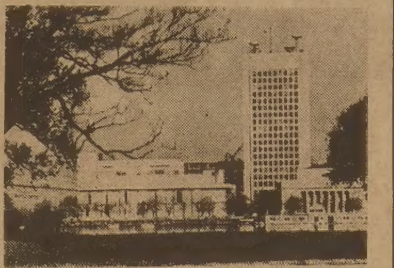
그래서 주말이면 한국학생들이 이곳에 더욱 몰려들고 서로 몰랐던 학생들도 여기서 인사를 나눈다.

MIT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과정을 밟고있는 유일한 한국학생인 安瑛燮씨(37)는『연구실이 따로있어 공부는 연구실에서 하지만 일주일에 한번쯤은 한국학생을 만나기위해 이곳에 들리게된다』고 말했다.

『이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학생들을보면 미국의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한국학생들도 정말 무섭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읍니다』 安씨는 특히 공부가 잘 진척이 되지않아 슬럼프에 빠졌을때 이곳에들러 젊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것을 보면 새로운 자극과 의욕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곳 한국 학생들의 생활은 매일 책과 씨름하는것 외에는 너무나 단조롭다. 데이트도 시간이 없어 못하고 술집을 찾는 일도 일년에 한두번 정도.

주말에 건강유지를위해 하는 수영이나 테니스, 자전거타기등이 이들의 유일한 취미이자 오락이다. 미국뿐만이 아닌 세계각국의 영재들이 모여들어「지성의 각축장」이 되어있는 보스턴에서도 우리 한국학생들의 부지런함과 끈기는 외국학생들의 경이의대상이 돼 가고 있다. 【보스턴=崔昇模 기자】



◇24시간 도서관을 개방해 학생들의 향학열을 북돋우고있는 美매사추세츠(MIT)공과대학의일부.

세계의 社會面

◇水泳안내판으로 변해버린 道路표지판 호우의 기습을받은 테사스州의 한도로상에서 가리·트래비스씨가 도로표지판을 발판으로 삼아 다이빙을 하고있다. 「위험, 호수가 앞에있으니 속도를줄이시오」라는 도로표지판이「위험, 천천히 다이빙하시오」라는수영안내문으로 변해버린느낌이다. 【外紙】

개 기르기 힘든蘇聯 "귀한 食糧낭비" 비난
개먹이 年間 20억弗어치
특별稅金으로 사육 규제

소련의 애견가들은 개사육세부과에이어 이번에는 개먹이 때문에 또다시 수난에 직면했다.

소련의 여론들은 귀한식량을 개먹이로 낭비하고있다고 비난하고 있기때문이다.

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는 지난주 개소유주들이매년 사입하는 개먹이가 20억달러어치가된다며 현재와같은 심각한 식량난에직면한 소련으로서는 식량을 국민의 생계를 위해 절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소련노조기관지 트루드도 한기사에서 개소유주들에게 판매되는 수천톤의고기가 낭비라고 불평했다.

개소유주들에 대한 이같은 비난은 식량위기극복을 위해 5월31일 소집된 소련공산당중앙위원 특별회의와 동시에 시작됐다.

이에대해 동물애호가들은 개에게 먹이는 고기는 수입품이 아니고 모두 국립도살장에서 구입하고있다고 항변하고있다.

한 개소유주는『나는 단지 뼈만을 사서 연골(軟骨)을 먹이고 있다』고 불평하기도했다.

소련당국은 그밖에도 개사육을 규제하기위해 개에게 주는 물, 개의 먹이를 요리하는데 사용하는가스, 아파트복도를 청소하는 청소원에까지 특별세금을 물리기로 방침을 세웠고 올해부터 1년에 1마리당 21달러의 사육세를 물도록 했다. 개사육세는 크기에 따라 달라 큰개는 1마리에 70달러까지 물게된다는 것.

애연가들의 수난은 이것뿐이 아니다. 소련인들이 겨울에 즐겨쓰는 쉽카스라는 모자가 귀하게되자 일부 개인업자들이 개를잡아 이모자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모자는 질에따라 1백80달러에서 2백80달러의 고가에 팔리고있는데 이때문에 소련에는 개도둑이 설쳐 아일랜드산 세터나 독일산 세퍼드, 푸들처럼 모자를 만들기에 좋은 개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하고있다는 것이다. 【모스크바=AP·AFP】

[illegible]의 사회면

無斷早退공무원 월급 환수해야
東京都감사위 조사 鈴木知事에게 통보

최근 일본 東京都의 감사위원들은 都廳공무원들의 출퇴근시간을 조사한결과 일부직원들이 정규퇴근시간 이전에 퇴근한 사실이 있음을 밝혀내고 이들에대해「지급된 봉급의 환급을 실시할것을 東京都知事에게 요청한다」는 내용의 이례적인 권고를 스즈끼(鈴木俊一)知事에게 통보했다. 감사위원들의 권고에 의하면 대상인원은 47명이며 액수는 2만1천6백72엔으로 비록 개인에게해당되는 금액은 많지않지만 전례가없는일이기때문에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크게 주목된다는것.

감사위원들이 이같은 감사를 시작한것은 지난3월30일「不公正을 추궁하는 시민의 모임」이라는 東京의 한 시민단체가『東京都의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부당하게 단축되고있다』고 주장하면서 ①과거 1년간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불법으로 지급된 봉급을 환급하고 ②정규근무시간을 지키게 하며 ③현재 비치된 출근부로는 근무현황파악이 어려우니 타임·레코더설치등 효율적인 방안을 취하라는등 3가지 요구조건을 내걸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먼저 東京都내 공무원들의 근무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사무국원 64명을 동원, 건설, 위생, 세무국등 9개局의 출장사무소를 포함, 77개 部課를 대상으로 5월중순 어느 한週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출퇴근시간을 조사했다.

그결과 5局61部課의 직원 연1천8백8명(6일간 통산)중 46명이 평일퇴근시간인 하오5시15분이 되기전에 아무 이유없이 나가버렸고 1명은 토요일퇴근시간인 낮12시30분 이전에 퇴근해버려 총47명(3·59%)이『아무런 이유없이』퇴근시간을 지키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국 제5건설사무소 관리과의경우 5월11일 출근자 23명중 21명이 퇴근시간까지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그중「아무 이유없는」무단조퇴자가 16명이었으며 제6건설사무소 관리과에서는 20명중 14명이 이유없이 조퇴했다.

한편 출근시간에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5局16部課의 2백80명중 정규출근시간인 상오8시45분까지 출근하지않은 직원이 36명으로 12·9%에 달했으나 모두「사유있는」지각으로 판명되었다.

47명적발…2만1천엔상당
「不公正추궁 市民모임」서 제기

이같은 공무원들의 근무실태가 파악되자 감사위원은 ①이유없는 조퇴자 47명에대해서는 都당국이 재조사하여 근무하지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봉급에서 조퇴분을 환급하고 ②조퇴자 47명 이외에도 모든 공무원들의 출퇴근시간을 면밀히 체크하여 부당한 사실이 판명되면 차없이 그부분만큼 월급에서 환급시키라 ③금후 근무시간을 정확히 지키는데필요한 각종 조치를 강구할것 ④이상의 조치는 오는 8월말까지 시행하라는등의「엄중한 경고」를 東京都知事에게 보낸것이다.

그러나「不公正을 추궁하는 市民의 모임」이 주장한 과거 1년간 봉급의 위법지급액을 환급시키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①출근부에 적힌 출퇴근 기록만으로는 근무태만의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며 ②타임·레코더를 설치하게 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재무·회계에대한 조사를 담당하도록 되어있는감사위원의 권한에 속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그런데同감사위원회의계산에 의하면 조사기간동안 밝혀진 47명의 무단조퇴자 봉급액은 평일 조퇴한 46명은(각자 15분 조퇴) 2만7백69엔(8만2천7원)으로 1인당 평균 4백51엔(1천3백53원), 토요일에 조퇴한 한사람(38분조퇴)은 9백3엔(2천7백9원)이 되는 셈이다. 【讀賣新聞】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국안내광고란을 찾아 보십시요.

광고문의: 738-7315
☎: 533-2361

울고싶을때 울고 서글픔은 빨리 잊어라

건강名言

데니스·기니
<美 건강서적저술가>

큰 서글픔, 悲嘆이란 중요한것을 잃었을때 생기는 감정, 이에대한행동에관한 복합적인표현이다.

데니스·기니 여사는 미국의 健康책 저술가로「슬픔을먹고사는 삶」이란 책을 낸「슬픔」에 대한 전문가다.

그녀는 슬픔이란 사람들이 잃는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속에 발생하는 감정의 움직임으로 병적인 것이기보다 生의 成衰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육체적으로 이런 비탄은 어떻게 나타날까? 고통이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물결치듯 가슴을 짓누른다. 목이 콱메이는 감이들고 숨이가빠 기침을 하게되며 한숨을 쉬고싶고 배가 텅빈듯하며 힘이 빠지고 마음속으로 고통스럽다고 스스로 판단케 된다.

이러한 고통은 죽은이의 이야기를 다시 꺼낼때 다시 찾아들게 마련이고 그래서 死別로 비탄에 빠진 사람들은 외부와 단절하고 자기고뇌에 빠져『내가 미쳤거니』하는 상태까지 도달한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의학면에서는 긴장의 상태에 빠져있는것으로 진단되며 안면근육이 경직되고 마음을 풀게되면 파멸될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있게된다. 결국 슬픔을 풀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긴장, 불면, 허무감, 자기혐오, 벌을 받아야한다는 죄의식에 싸여 자살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남을 저주하고 혐오해 슬픔을 풀려하지 말아야한다. 저주는 죄를 낳게하고 그후 용서나 화해가 필요해진다.

슬퍼하는것은 어떤것을 잃은것에 대한 서글픔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 슬퍼하는것이다.

생은 주검, 탄생의 반복과정이며 잃어버린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것은 극히 인간적인행위다. 슬퍼하는것은 건강에 좋고 극히 인간적인것이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流星의 賦 <407>

壬辰의 해는 저물어 ⑤

李炳注 作　李友範 畵

『부왜반도(附倭叛徒)의 적발은 제게맡겨 주십시오』

하고 신봉이 제의했다.

당분간 특별한 작전이 있을 것 같지않다고 판단한계남이 신봉의 제안을승낙했다. 계남은 권율과더불어 대결전(大決戰)은 명년 2월쯤에 기하자는 합의를보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고 신봉에겐 물을 필요도 없었다. 그가 거느리고 있는 특수대의 이름을 귀곡대(鬼哭隊)라고했다. 이를테면 그들의 재주가 너무나 비상해서 귀신이 곡할 지경이란 뜻이다.

그러나 계남은

『너무 오래 본거(本據)를 비우는 것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불의의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출동기간을 5일간으로 하고, 일단 돌아왔다가 가도록하자』는 말은 잊지 않았다.

신봉이 귀곡대 20명을 인솔하고 떠난 것은 사흘후였다. 그는 이번엔 주로 수원, 죽산, 양성등지를 살펴볼 참이라면서 연락방법과 암호를 정해놓고 떠났다.

그런데 바로 그날 계남에게 진객(珍客)이 있었다. 석개동(石介童)이란 자가 찾아왔다. 전초근무를 하던자가 하번(下番)할 때 데리고 왔는데 그 복색이나 용색이 거지꼴을 하고 있었다.

『장군님을 잘 안다고 하두 우기기에』

전초가 변명하는 투로 말했지만 그가 석개동임을 단번에 알아차린 계남은 막사에서 뛰어 나오다 시피하여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군관님 오래간만입니더』

석개동이 눈물을 글썽하며 얼어붙은 땅바닥 위에 엎드려 절을 했다.

『학봉 어른께선 잘 계시느냐』

『예, 두달 전까진 잘 계셨습니다. 지금도 잘 계실줄 압니더』

『이리 들어오너라. 우선 몸을 녹이게. 얘기는 차차 허구』

계남은 원행하고 돌아온 동생을 대하듯 손목을 잡고 석개동을 막사 안으로 맞아 들였다.

석개동은 학봉 김성일(金誠一)의 상노(床奴)였다. 말하자면 몸종이다. 계남과는 지난해 봄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때 알게된 사이였다. 김성일은 석개동을 극히 총애했다. 종이라고 하기보다 친자식처럼 석개동에게 대하고, 석개동 역시 종으로서 보다도 아들처럼 김성일을 받들었다. 누구나 그 주종관계(主從關係)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우선 몸을 녹인후 더운 물로 몸을 씻게하고 새옷으로 갈아 입히곤 요기를 시켰다. 그러자 상노 답지 않은 귀골(貴骨)이 완연하게 나타났다.

석개동이 거기까지 흘러온 경위를 설명하는데.

『진주성 싸움 얘긴 들으셨지유. 그 싸움의 전말을 의주 행재소에 전하는데 학봉나으리께서 말글로써 적어 주셨어유. 2백리를 가니까 의주더만요. 돌아오는 길은 전혀 걸어서 왔지요. 진주를 떠날때 학봉나으리께서 말씀이계셨어유. 홍군관님께선 경기도에 계신다고 들었다구요. 혹시 기회가 있으면 군관님을 찾아 뵈오라는 분부였어요. 그리고 문서를 써 주셨는데… 똑똑히 외우었다가 직접 말씀드리라고 하셨는데, 대의(大義)를 위해서도 몸조심하시어 청사에 이름이 빛나시도록 하시라는 분부였사옵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찾아왔죠. 여기 오다가 몇번 죽을뻔 했읍니더…』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35>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응달 ⑮

『언니 난 유춘자야』

춘자가 별안간 밑도 끝도 없이 자기소개를 했다.

『나도알아』

『유가는 울아버지성이야. 나라 원장아버지 성이야. 이집엔 유가가 참 많았지』

『우리 유가들은 유가아닌 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줄 알아?』

『유가아닌 애는 몇되지도 않았잖아?』

『희소가치때문에 부러웠던거 아냐. 유가아닌 애들은 뭔가 신비한 가족들과 끄나풀을 가지고있는것 같아서였어. 부모가 아니더라도 형제나 하다못해 친척이라도 나타나기로 약속한 아이처럼 보여서 질투나 기분었지』

『그런 기분 아마 유가아닌 애들은 짐작도안될걸』

『아냐. 알것 같아. 끝내 그 끄나풀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지만 말야』

『죽을 때까지 쓸모가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게 부러웠던거야. 그런 언니처럼 그걸 지키려고 들어도 일생일대의 대목 복을 박차야할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한걸까?』

『또 그 얘기니? 넌 참 징기도 하다』

오목이는 한없이 한숨을 쉬었다.

『언니가 딱해서 그래. 언니, 넌 뭘 너무 몰라』

『그래, 내가 아는건 내가 뭘 너무 모른다는 것 한가지뿐이야』

『그거라도 알고있으니 고맙수. 나 보기엔 언니는 너무 철부지야. 내가 벌어온 돈 그거 어떻게 번건지 아마 상상도 못할걸』

『대강은 짐작해』

오목이가 몸을 웅숭그렸다. 그러나 춘자 보기엔 도사린 것처럼 당독스러워보였다.

『흥 술집이라니까, 맥주 거품, 화려한불빛, 돈 잘 쓰는 남자들, 째지는 생음악 기껏 그런거나 상상하겠지. 나 나가는데는 그런데도 못돼. 어떻거든 그런데로 가는게 나 나가는데 있는애들 모두의 꿈이라우. 나 나가는데가 어떤데지 들어볼래?』

『아, 그만둬』

오목이가 질겁을 하면서 몸을 더욱 움츠렸다.

『넌들 뭐 이렇게 되고싶어 된줄알우. 나도 정당하게 일해서 입에 풀칠하려고 노력하는데까지 해봤다구. 언니가 지금 나 같은 년의 몸뚱이라도 마다하지 않은것과 마찬가지루다. 그렇지만 시간문제라구요. 언니도 별수 있을줄알우』

춘자는 오목이를 꿇어앉힐 듯이 빤히 쳐다보면서 자신있게 말했다. 오목이는 설명할수 없는 차가운게 등골을 스치는것 같아 몸을 진저리를 쳤다.

『내가 뭐래도 상관안했어. 구박해도 달게 받아왔어. 그렇지만 우리같은 애들은 다 결국은 너처럼 되고만다는 생각은 참 싫구나』

『언닌 날 경멸하지. 나쁜 년이라고 생각하지? 내 밥을 얻어먹는 주제에. 왜? 내가 왜 나빠? 계집애가 어느날 문득 얼굴에 분칠이 입에 풀칠만큼이나 허기가 지게하고 싶어질적이 있는게 그렇게 큰 죄야? 남다 입는 레스달린 속옷 한 번 입어보고싶어 한게 왜 나빠?』

얘기의 샘

느낌 過多症

프랑스의 시인 로랑·타이아드에게 어떤 부인이 열심히 호의를 보였다. 하지만 시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덤덤하기만 했다. 참다 못한 부인이『타이아드 선생님, 선생님은 저를 만나시면서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시나요?』 시인『왜 못 느끼겠읍니까. 느끼고 말구요. 원리(原理)의 무력함을 말입니다』

딸의 電話

결혼식 이튿날 아침 신혼여행간 딸에게서 친정으로 전화가 왔다.

『엄마, 그이는 너무해요』

『아니, 왜? 조치가 어떠했길래?』

『어젯밤에 말예요, 우리가 바야흐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글쎄 도어를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친정 어머니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조치는 너를 팽개쳐두고 밖으로 나갔단말이냐?』

『그게 아녜요, 엄마!』 전화소리로 웃음을 참는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이가 어떠했는지아세요? 글쎄 사랑하는 나를 품에서 놓치고 싶지 않다면서 나를 껴안은채로 베드에서 내려가 도어를열었지 뭐예요. 호호… 알몸인채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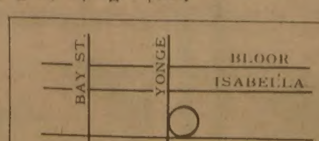
江戸前 太鼓寿司

어제오신분이 —
— 또 오십니다

쓰시(김밥)전문

일본음식중 김밥만 전문으로 하고 있읍니다.

밤 12시까지 OPEN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십시요.



TAIKO SUSHI
607A YONGE ST.
☎: 921-6408

MLS

주식회사 황윤현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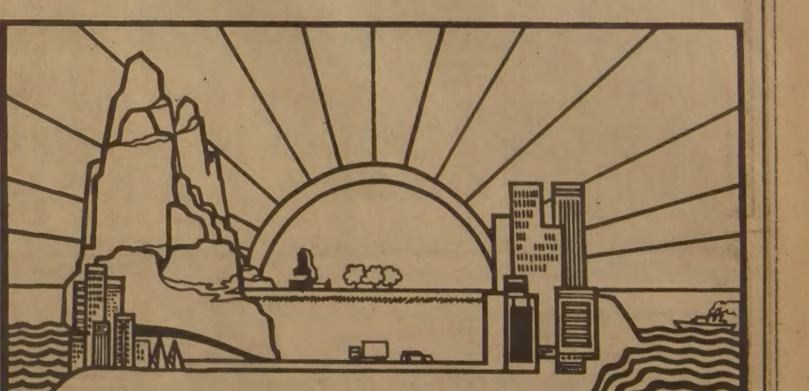
HWANG

금주의 새리스팅

1.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13,500
8,000
6,500
6,000
4,000(일요일 닫음)
2. (버라이어티 스토아와 건물)
다운타운 바쁜 네거리 위치
코너 스토아
주매상 7,000~8,000(2,3층에 아파트 4개 달린 건물)
가격 43만불
3. 도넛츠·숍
- 일요일 닫고 하루 12시간만 영업
  년 순수익 52,000불
  가격 13,5000불
- 주매상 8,500, 7,500불 이외에 쇼핑센타내에 있는 몇몇 Gift 및 Smoke Shop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당신은 캐나다에 속합니다



…또한 캐나다도 당신에게 속합니다

캐나다는 당신의 나라입니다. 모든 주, 모든 도시, 모든 마을. 우리의 매력있는 국가의 중심지 지역, 동쪽의 대서양 주들에서 서쪽에 걸쳐 높게 솟은 록키산맥.

최고의 천연적인 미; 복잡과 단순을 겸한 친근감; 다른 나라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넓은 휴양지.

금년 당신의 캐나다의 또 하나의 부분을 아십시요.

Canada

Canadian Government Office of Tourism　Office de tourisme du Canada

항소심도 無罪인데 "高여인 保釋출감시켜야"

法條文에 얽매여 決定인색 令狀효력지속 뜯어 고칠때

法曹界

2심에서까지 무죄선고를받은 高淑鍾여인(47)이 납득할수없는 이유로 여전히 감방속에있다. 무죄라면 즉각 석방돼야하는것이 상식인데도까다로운 형사소송법과 인색한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의 벽때문이다. 10일 尹노파 피살사건의 高淑鍾피고인이 보석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부 결정이 없어 풀려나지 못하자 이에 관한 논의가법조계에서 다시 일고있다. 즉高여인에대한재판부의 보석허가결정은 2심판결과 함께『나왔어야 하며, 더나아가서는『사형, 무기, 10년이상의 징역또는 금고형이 구형된 피고인이 무죄가 선고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는다』고한 형사소송법 3백31조는 유례가 별로 없는것으로 이번기회에 고쳐야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高피고인의 변호인인 金炯準변호사는 지난2월1일 1심선고공판에서 高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직후 1심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했다가 며칠후 취하하고 2심재판부에 다시 보석을 신청했었다. 高피고인은 당시 무죄를 선고 받고도 형소법3백31조 규정때문에 풀려나지 못했고 金변호사가 1심재판부에 낸 보석신청을 취하한것도 살인 사건등의 경우 무죄를 선고 받아도 1심에서는 보석이 잘 안된다는 재판관행때문이었다.

高여인 사건 2심재판부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 金永振 부장판사는 10일 高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직후『상고심에 기록이 송부되기전 보석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상고장을접수(7일이내)하고 다시 상고심에 기록을 송부(14일)하는 날짜를계산하면 21일을 기다려야하고 또 반드시 보석허가가 난다는 보장도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재판관행으로보면 살인등 중죄인 사건의경우 1·2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도 보석여부를 결정하지않고 상고심에 떠넘기거나 아예 기각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헌법은「법관의 영장없이는 구속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고 형소법70조는 구속요건으로「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는때」로 정하고 있다.

구속요건이 예외적으로 정해져있다는 것은 불구속이원칙이라는 뜻이다.

또 형소법95조는 보석불허요건으로▲법정형이 사형,무기, 10년이상 징역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때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범했을때▲증거를 인멸 염려가있다고 믿을만한충분한 이유가 있을때▲주거가 불명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이유가있을때로 정하고 이경우이외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역시 보석불허요건을 예외적으로 정한것은 보석이원칙이라는 얘기가된다.

그러나 우리법원은 보석으로 내보내면 소환날짜에 제대로 응하는일이 드물어 재판진행상문제가있다는 이유로 보석허가에 주저하고 보석허가를 마치 혜택을 베푸는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있다고 꾸짖는 변호사들도 있는형편이다.

이때문에 법관들이 보석을 허가하는경우는 대부분 판결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많은경우에 한하는것이 보통이고 형소법상의 필요적 보석은 잘지켜지지 않고있다.

실제로 81년한햇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보석신청건수는 1·2·3심합쳐 7천3백21건에 불과하고 이가운데 3천81건만이 허가됐다. 심급별 허가율은 지법1심이 44·8%, 지법항소심이 35·6%, 고법이 24·2%등으로 심급이 올라갈수록 허가율이 낮다.

형사소송법 3백31조 규정도▲인권보장측면이나 ▲형소법상의 구속기간이 1심 6개월 2심 4개월 3심 4개월에 배치되는 조항이라는것이 변호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李海鎭 변호사는 1·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도 징역10년이상 구형사건이라는 이유로 못 풀려나면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는경우 법정구속기간을 훨씬 넘겨버리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엄마 품에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시험관아기를 낳은 李秀姬여인과 아기。【LA支社電送=林鵬】

한국人 첫 試驗管아기 탄생

LA교포 美서 3번째…産母·딸健康

【로스앤젤레스支社11日=邊鴻鎭기자】사상최초로 한국인부부를 통한 시험관 아기가 9일 상오10시52분(한국시간10일새벽3시52분) 미국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메디컬센터 여자병원에서태어났다.

이시험관 아기는 미국전체에서 세번째이며 미서부에서는 첫번째이다.

아기의 체중은 출산시 3·2kg이었으며 산모는 올해 35세의 재미교포 李秀姬여인으로만 밝혀졌다.

이여인은 8일 하루종일진통을 겪다 정상분만을 하지못하고 9일상오에 제왕절개수술로 아기를 분만했는데 산모와 아기는 모두 건강하다.

이 아기는 지난해 9월부터 USC(남가주대학)의과대학 산부인과 시험관아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태어났으며 아기의 이름은 이영란으로지어졌다.

이시험관아기 프로그램의 책임자 리처드·마스박사(34)는『산모가 72년에 난관수술로인해 정상적 수태를 하지못해 시험관에서 수정하게됐다』고 말했다.

9일 하오1시 시험관아기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마스박사는『산모와 아기가 건강하며 오는10월과 11월에 또다른 시험관 아기가 태어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스박사는『시험관아기를 갖기위해 인공수태를받은사람은 지난해9월이후 李여인등 25명이었는데 그중 李여인을 포함, 5명만이 수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李씨의 난소에서 난자를 꺼내 특수처리된접시에 놓고 李씨남편의 정자를 추출, 특수접시위에서 난자와 정자를 결합해 수태에 성공, 수태된난자를 다시 산모의 자궁에 이식했다고 말했다.

시험관 아기의 수태 출산비용은 3천~6천달러(한화 2백10만~4백20만원)로에상되는데 李여인의경우 3천7백달러 (2백60만원)가 들었다.

『비트로(Vitro)수정』으로 알려진 이시험관 아기수태의 성공률은 15~25%라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다.

산모 李여인은 10일『마침내 아기를 가지게 되어 너무 기쁘다』면서『나의 경우가 아기없는 부인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마스박사의 특별허가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여자병원 4층 36號 병실에서 시험관아기와함께본사기자와의 단독인터뷰에 응한 李여인은『지난해 6월 시험관임신을 결심했다』면서『시험관임신이 성공되리라는 확신은 없었다』고 말하고『두번째 수정에서 수태가 성공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李여인은 또『수치심같은 것은 느끼지 않았으나 뉴스의 초점이 되는게 몹시 두려웠다』고 말했다.

혈액형이 AB型인 산모李여인은 13년전 남편과함께로스앤젤레스로 이민왔다.

또한 마스박사는『일본등지에서 이번케이스에대해 문의가 오고있다』고 밝히면서『한국에서도 문의가오면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水害상습지엔 水防團조직"

盧내무 釜山등순시

【釜山=裵琪哲기자】盧泰愚내무장관은 11일 부산시청과 경남도청을 초도순시한 자리에서『전염병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수해상습지역에는 수방단을 조직, 피해가없도록하라』고 지시했다.

利川에 늑대 소동 주민 恐怖에 떨어

【利川】경기利川郡雪星面에 늑대떼가 출현, 가축들을 잡아먹는가 하면 모심던 주민들에게접근하기도해 주민들이공포에 떨고 있다.

이들 늑대는 지난 3월중순부터 나타나기 시작, 3개월간 新筆2里·長泉4里·白石里·松界2里등 4개마을을 돌아다니며 염소6마리·돼지 2마리등을 잡아먹었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해가지기전에 귀가하고 외출을 가급적 피하고 있으며 국민학교 어린이들은 부락별로10~15명씩 모여 상급생들의 인솔아래 등·하교를하고있다.

늑대들은 지난3월15일 新筆2里 金東雲씨(45)집돼지 1마리를 물어갔고 5월2일에는長泉4里 金榮基씨(29)의 염소3마리를 습격, 잡아먹었다.【聯合】

住宅街코앞에 LPG充塡所

木浦龍潭洞 옆엔注油所 "事故충전" 住民 반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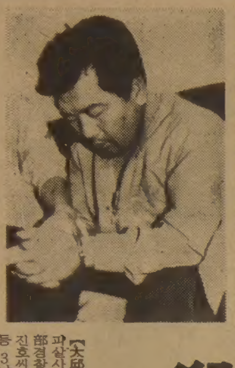
【木浦이동독자부=鄭東鎬기자】木浦시내에 설치되는 LPG충전소 4개소가운데 1개소가 주택가와학교가 인접한 상업지구에 허가돼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나섰다.

전남도는 정부의 택시연료 LPG화정책에 따라 木浦시에 4개의 LPG충전소를설치하도록 허가했는데 이중木浦市龍潭1洞1080의3호광장앞에 설치될 동화가스충전소가 주택가는 물론 木浦상업고등학교와도 가깝고 행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상업지구에 자리잡게돼 주민들은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클것이라고 주장, 당국이 재고해주어야 한다고주장했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곳에 15톤용량의 가스탱크가 매설된다는 소문이나자 벌써부터 부동산 가격까지 떨어지고있어 재산권행사에도 영향을받고 있다는것. 이들은 또동화가스가 들어설 자리 바로 옆에는 2개의 주유소가 이미 영업을 하고 있어 사고가나게 되면 그 피해는 더커질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木浦에서 운행되고있는 3백2대의 택시는 물론 7월중 증차되는 1백50대까지 모두 LPG화한다는 방침아래 지난달 동화가스외에도 二老洞에 木浦가스, 三鶴洞에 한국가스와 대웅가스등 3개의 가스충전업소를 허가했는데 이들 3개소는 주택가와 떨어져 있다.

한편 木浦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11일 상오10시부터 시청회의실에서 진정인과 업소대표, 기타관계인사등 50여명을 모아 공청회를 열었는데 시는 제반 기준에 부합된다고 말하고 가스안전공사 기술진을 동원, 주민들을 설득했다.



◇잠자는 3남매를 넥타이로 목졸라 숨지게한 비정의 아버지 유진호씨。

殺害犯은 아버지

가정不和 화풀이…3男妹 목졸라

【大邱】大邱市東下洞3남매피살사건을 수사중인 大邱東部경찰서는 11일 아버지 유진호씨(42)가 유봉순양(16)등 3남매를 살해한사실을밝혀내고 유씨를 살인혐의로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사용한 넥타이를 자기집 안방에서 찾아내 증거물로 압수했다.

유씨는 경찰에서 부인의잦은가출로 가정이파탄되고 생활이어려워 자살하기로 결심, 자신이 먼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뒤 잠자던아이들의 목을 차례로 넥타이로 졸라 숨지게 했으나 자신은 그다음날 깨어났다고말했다.

유씨는 부인 宋모여인(38)이 지난79년부터 화장품외판원, 보험회사외무원등으로일해오면서 거의 매일밤 늦게 귀가하고 자신의 술주정등으로 가정불화가 잦았고 지난5월8일 부인이 무단가출한후 다른남자들과 놀아난다는 소문이퍼져 동반자살키로했던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직후 유씨의 행동이 수상하고 외부침입흔적이 없는점으로 미루어 내부범행으로단정, 유씨를 집중추궁한끝에 이날범행일체를 자백받은것이다.【聯合】

稅務員 피살사건 主犯에 無期선고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金永振부장판사)는 11일 서울北部세무서원 姜貞根씨 피살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주범金明煥피고인(23)에게 1심대로 무기징역을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崔春燮피고인(26)에게는 1심대로 징역5년을 선고하고 1심에서 징역4년이선고된 金光源(36)李岩(36)李文榮(26)등 세피고인에게는 각각징역 2년씩을 선고했다.

◇전방부대 멸공관에서 안내장교의 브리핑을 듣고있는 한국교육자대상 수상자들.

한국教育者大賞 수상자 夫婦동반 前方부대위문

한국일보社가 제정한 제1회 한국교육자대상수상자 26명은 11일상오 부부동반으로 육군전방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위문했다.

이번 전방위문에는 張在民 한국일보LA미주본사 사장과 裵成煥이사가 동행했다.

한국教育者大賞수상 慰禮校 丁鏞聲교감 市敎委 장학사發令

서울시교위는 11일 한국일보社제정제1회한국교육자대상에서 스승의상을 수상한 서울慰禮국교丁鏞聲교감(49)을 시교위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사로 발령했다.

稅關員사칭…暗去來商납치

공갈단 7명을 檢擧

세관원을 사칭, 외제품 암거래상을 승용차로납치, 7시간 동안 끌고다니며 현금5억원을 요구했다가 5백70만원을 뜯어낸 공갈단 7명이 경찰에 검거됐는데 이들중에는 두 형제가끼어있었다.

서울시경은11일鄭求德씨(37·폭력전과2범·서울江南區瑞草洞우성아파트21동1105호)、求善씨(33·전과2범)형제와 李鐵和씨(37·전과3범·서울永登浦區新吉洞92)、秉和씨(32)형제 및 高榮俊씨(34·전과6범·경기富川市松來洞570)등 5명을 범죄단체조직, 특수강도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외제품 판매업자金모씨(25)를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지난달31일 새벽6시반께 수배된金씨를시켜 외제품상인金永旭씨(32)와 李洙鎬씨(33)에게『미군부대에서 막 나온 버터와 아이스크림 1백만원어치가 있으니 거래하자』고 꾀내 경기城南市板橋洞 야산에서 물건을 건네게 한뒤 현장을 덮쳐 몽둥이로 때리고 사진까지 찍으며『서울세관 단속반원이다. 모두 구속시키겠다』며 위협했다는것.

이들은 두사람을 미리준비한 경기1가4538호 브리사승용차에 태워 서울江南區三成洞 D여관으로끌고가 피의자조서까지 받으며 협박, 金씨가 잘봐달라고 하자 5억원을 내놓을것을 요구하다 1천만원에 봐주기로 했었다는것。

「水門將」 仁川港의 管制士 梁鍾弼씨

30년證人…수만톤배도 아기 다루듯

마도로스 수첩에는 이별도 많다지만 세계각국의 마도로스들이 드나드는 仁川港의 水門將 梁鍾弼씨(사진·仁川市花平洞456)는 이仁川港수문을「이별없이」30년째나 지키고있다.

수출과 해외건설의 회오리가 몰아친 지난30년간 거대한 富와 文物이 그가 여닫는 갑문을 통해 드나들었다.

지금은 제2도크가 완성되어 거대한 화물선의 접안이 가능하지만 梁씨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仁川港의 옛모습은 무척 회화적인 것이었다.

6·25전쟁직후에는 2천톤급 미군LST를 입거시키기 위해 전직원이 독위에 올라가 호루루기를 불거나 깃발을 흔들며 이리뛰고 저리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배의 안전접안을 유도해야했다.

지금은 불과 몇개의 단추만을 조작해서도 5만톤급 외항선까지도 손쉽게 접안시킬 수 있지만 梁씨에 따르면『위풍당당한 큰배도 항구에 들어오면 젖먹이 어린애처럼 살살 다루어야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거, 혹은 출거작업은 梁씨와 외항선 선장과의 무선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梁씨는 머나먼 외국에서온 외항선 선장의 첫마디 액센트만을 들어도 그의 국적을 대번에 알아낼 수 있다. 교신이 시작되면 도선사와 예선을 수배,외항선에 배치하게 되는데, 산더미 같은 선박들은 梁씨의 지휘에따라「젖먹이처럼」조심스럽게 방향을 잡아가며 접안해 온다.

또 仁川을 떠나가는 외항선들도 안전수역에 들어설때 까지는 꼼짝없이 梁씨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고맙다」는 말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머나먼 원양으로 떠나간 외항선들이 몇달 후에 다시 仁川앞바다에 나타나 梁씨와「舊面」의 情을 교신으로 나누기도한다.

금년부터는 仁川港이 24시간 풀가동하게되어 梁씨에게는 일정한 출·퇴근 시간이 없다. 아침에 도시락과 라면을 싸가지고 나와 하루종일 외항선의 출입을 유도해야 한다. 수많은 人種의 수많은 배들이 仁川港을 떠나갔지만 배를 떠나보내는 梁씨는 항구의 수문을 떠날수가 없는 모양이다.【仁川=崔成基기자】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Maximode
○ 숙녀를 위한 수입품 불란서, 이태리 핫숀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 가격이 저렴합니다.
OPEN : MON(월)~SAT(토)
9 a.m.~5 p.m (오전 9시~오후 5시)
147 Spadina Ave. #200(2층)
☎ : 596-1413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개업 특별봉사
숙녀복(Ladys Wear) 전문
공장생산가격으로 직매합니다.
→상세한 바느질과 고급제품
월~금 : 10시~6시, 토~일 : 10시~4시30분
BOSCHE CO.
292 Parliament St.(at Dundas)
☎ : 362-2300 MR. 리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한국、和蘭함께 準決진출

대통령盃축구 弱體바레인 따돌려 3-0

처음엔 主戰級 쉬게한 여유

李泰昊 先制골… 崔淳鎬 추가

【光州=安泰俊기자】한국대표팀은 11일 하오 無等경기장서 벌어진 제12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7일째 예선A조 경기서 약체바레인을 3-0으로 물리쳐 3승1무를기록, 아인토호벤과함께 4강이 겨루는 준결승진출권을 얻었다.

이날 네덜란드의 PSV아인토호벤은 印度와 1-1로 비겨 2승1무를 기록, 13일 인도네시아와 최종 경기를 갖게됐다.

아인토 호벤은 후반 4분 印度의 타파에게 헤딩골을 허용, 0-1로 열세에 몰렸으나 25분에 포르트블리트의 중거리 슛으로 1-1동점을 만들었다. 아인트 호벤은 전후반을 통해 26개의 슛을 때렸고 印度는 슛6개를 기록했다.

한국은 아인트호벤에 7골차로 대패했던 바레인을 맞아 주전급 선수들을 벤치에 돌리고 여유있는 자세로 제입에 임했으나 골이 터지지 않자 전반중반에 崔淳鎬를 기용하여 돌파구를 열었다. 한국은 전반28분 바레인문전 중앙지점에서 崔淳鎬가 헤딩으로 볼을 왼쪽으로 갈랑주자 李泰昊가 볼을 받아 선제골을 성공시켜 선제골을 장식했다.

한국은 후반7분 페널티킥을얻어 李泰昊의 킥성공으로 2점째를, 이어 崔淳鎬가 볼린슛을 성공시켜 3-0을만들었다.

◇제7일전적

▲A조

대한 한국 3 (2-0 1-0) 0 바레인 (3승1무) (1무2패)

아인트 호벤 1 (0-1 1-0) 1 인도 (2승1무) (1무2패)

◇제6일(釜山)

▲B조

할렐루야 4-0 레버쿠젠 (2승1무) (2패)

말聯 1-1 태국 (1승1무1패) (1무1패)

슛…和蘭26·印6개…1대1비겨

◇할렐루야! 10일 釜山서 열린 할렐루야-西獨 레버쿠젠경기서 할렐루야의 HB 金正熙⑮가 西獨선수와 볼쟁탈전을 벌이고있다.【金龍逸기자】

金鍾允등 3명選拔 마라톤 뉴델리 派遣

대한육상경기연맹은 金鍾允(육군3사)등 3명을 오는11월 뉴델리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마라톤대표선수로 선발했다. 대표팀코치는 尹卓寧(한체대)씨가 맡게됐으며 13일부터 泰陵대표선수단 강화훈련에 합류한다.

◇마라톤선수단

▲코치=尹卓寧(한체대) ▲선수=金鍾允·朴元根(이상육군3사) 金梁坤(한체대)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比팀과 爭覇 파닌컵농구、美팀 꺾고

【메단10日안타라=聯合】인도네시아의 제6회 파닌컵농구대회에 출전중인 한국팀은 9일 준결승전에서 강력한 우승후보인 美USF팀에 76-75로 승리, 작년우승팀인 필리핀의 크리스파팀과 우승을 겨루게 되었다.

한국팀은 이날 美USF팀과 기민하고 활발한플레이를 펼친끝에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한편 필리핀의 크리스파팀은 이날 준결승전에서 泰國을 80-73으로 제압, 한국팀과함께 결승에 진출했다.

北一高、春川에 콜드게임勝 12-2

中高야구選手權 6회초선 대거7得點

光州一、徽文에 9회말大逆轉

天安北一高가 눈부신 기동력을 과시하며 春川高에 12-2、6회 콜드게임승을 거두고 전국중고야구 선수권대회 8강에 올라섰다. 北一高는 11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대회7일째 2회전에서 春川高내수비 허점을 찔러 6개의 도루로 찬스를 이어가며 6회초 한회에 6안타를 몰아때려 7득점, 게임을 마무리 지었다.

春川高는 초반 北一高1년생 투수 金吉善을 착실히 공략、더많은 안타를 날렸으나 연속 4안타로 1득점에 그치는등 경기 경험에서 노련한 北一高에 적수가 되지 못했다.

北一高는 5-2로 앞선 6회초공격에서 선두9번 吳孝根이 春川 유격수의 범실로 살아나가 패스트볼로 2루에 진출했으며 1번 吉良根은 좌전안타에이어 2盜, 2번 任學彬은 포볼을 골라나가 無死만루의 대량득점찬스를 만들었다.

이후 北一은 4번 張昌文의 우중월3루타、6번 金明柱가 우월2루타、7번 李光俊이 좌전적시타、8번 白東鉉이 중전적시타、9번 吳孝根이 좌월2루타를 날리는등 11명의 타자가 집중포화를 터뜨려 콜드게임에 필요한 7점을 뽑아냈다.

6회초의 대공세로 北一高는 3번 趙龍鎬를 제외한 8명이 고루안타(12)를 날렸으며 1번 吉良根을 제외한 8명이 고루12타점을기록했다.

한편 전날열린경기서 光州一高는 9회말 1死후 핀치히터 金木政이 2타점 동점타를날리고 9번金鎭貴가 결승 스퀴즈번트를성공시켜, 徽文高에 3-2로 기적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다.

◇제7일2회전

북일고	002	127	12
춘천고	001	010	2

(6회콜드게임)

◇제6일 2회전

휘문고	000	010	100	2
광주일고	000	000	003	3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스페인·월드컵 펠레 리포트 ②

마드리드 월드컵조직위원회의 공식적인 첫공고문은 다음과 같다. 「월드컵경기에 사용될 축구볼의 무게및 크기의 공식측정은 6월11일 금요일 하오3시부터 5시30분 마사이에 실시된다. 장소는 마드리드의 박람회장」

이는 가장 권위있는 축구대회에서 24개팀의 수준을 재는것이 볼의 무게와 치수를 재는것만큼 단순한 것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王座는 어느팀에?

브라질이 우승한다면 그것은 월드컵대회 4번째 우승이며 유럽대륙에서 두번째우승이다.

브라질외에는 78년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유럽팀중에서 가장 강한 인상을 주는 西獨과 개최국 스페인이 있다. 西獨과 브라질、스페인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은 월드컵82의 가장 환상적인 팀으로 준결승에 진출하게될 것이다. 큰 이변이 없다면 브라질과 西獨이 78년 부에노스아이레스때와 마찬가지로 유럽과 라틴의 패권쟁탈전을 벌일것으로 나는 믿는다. 78년에는 아르헨티나가 네덜란드를 꺾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나는 더이상의 추론은 하지 않겠다.

아르헨 브라질 西獨 스페인등 莫強팀

78년때처럼 유럽·라틴再對決 가능성

西獨은 세계의 한축부분 정도로 불균형을 보이는 ·루메니게에게만 의존한 그런 팀은 아니다. 西獨은 많은 스타를 갖고 있다. 西獨은 유럽에서 정상에있는 팀이다. 그들은 2년전 로마에서 유럽선수권을 차지했으며 월드컵예선에서는 8게임을 모두 이겼다. 또한 지혜와 기술과 용기와 빠른 발걸음을 갖춘 2년연속 유럽최우수선수의 칼·하인즈…

나는 南美의 특출한 팀들이 西獨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기위해서는 78년때보다 더 강해져야할 것이다. 4년전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의 메노티 군단에 끌 수 없는 나이였고 브라질의 지코는 지금처럼 세련되지 못했었다. 이런점에서 南美는 4년전보다 향상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가 극복해야될 문제는 어웨이경기에서의 취약점, 특히 유럽땅에서 약한 징크스를 깨는 일이다. 아르헨티나는 1·2차리그를 통과한다면 준결승전에서 라틴계의 상대를 만날것 같다.

스페인은 개최국으로서 관중의 환성、친밀한 경기장등 잇점이 있으며 다른팀들이 겪는 식사나 기후에 대한 문제에서 해방되어있다. 지난 11번의 월드컵에서 개최국이 5번이나 우승했다. 나는 스페인이 본선에서 가장 예리한 태클과 억척같은 플레이를 할것으로 확신한다.

소련、이탈리아、잉글랜드、프랑스、유고슬라비아、페루、칠레등은 복병이될 것이다. 그러면 「대양의 작은 고긴」들로 불리는 축구소국들의 본선진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FIFA가 본선진출팀을 16개국에서 24개국으로 늘린것은 월드컵의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논쟁이 있었다. 수준이라니 어떤 수준말인가? 16개팀이 출전했을때 몇몇 하위팀들이 철저한수비 플레이를 펼려하고 있는것같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도가 알제리、쿠웨이트、카메룬、엘살바도르、온두라스、뉴질랜드 같은 나라에게도 월드컵의 문을 열어주었다는데 더 의의를 두고싶다.

강한팀들도 결국은 이들 소국을 이겨야 한다. 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 출전했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이탈리아를 물리쳤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나는 1950년 9살때 빛나는 잉글랜드가 나라 브라질에서 美國에 패한것을 보았다. 벨호리존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라디오를통해 들은 나는 『언더·독(약팀)은 경멸해서는 안된다』고 하는생각을 갖게되었다. 월드컵에서는 어떠한팀도 상대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韓國委서不法묵인 발라바選手사망도 比권투協會주장

【마닐라10日AP=聯合】필리핀 프로권투협회(PROBAP)는 회원국간에 윤번제로 말게되어있는 동양·태평양권투연맹(OPBF)의 회장직을 도맡아 하기위해 한국권투위원회가 교묘한 수단을 썼다고 10일 주장했다.

필리핀협회의 마르셀리노·디존회장은 필리핀 경기오락위원회가 이같은 조치로 빚어진결과를 항의해줄것을 요청했다.

특히 그는 한국측이 권투선수나 매니저들의 불법적인 경기운영을 묵인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한예로서 한국선수들은 손가락마디아래를 반창고로 감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배구 林海淑·金愛珠、西獨클럽팀 進出

스포츠話題

◇林海淑

◇金愛珠

여자배구 국가대표 선수출신 林海淑(26)과 金愛珠(24)가 西獨 클럽팀에 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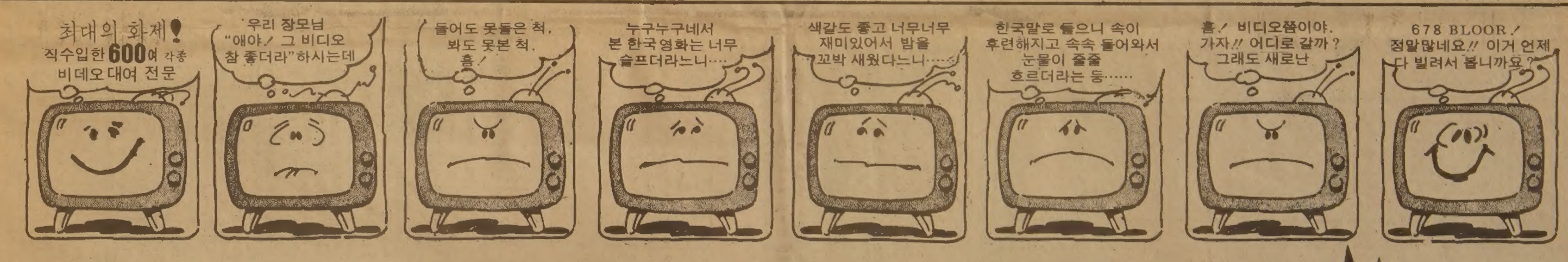
西獨 1부리그 5위팀 유젠터·센터·포야바크에서 올 가을부터 두 시즌을 선수로 뛰게될 이들은 매달 1천9백마르크(한화 57만원)와 연1백% 보너스、아파트등을 각각 제공받게된다. 또한 이들이 독일어를 익힐때까지 수업료등은 팀에서 부담하게되며 포야바크가 3위안에 들게될 경우 보너스가 추가지급된다.

지난해 4월 실업 1차연맹전을 끝으로 현역서 은퇴, 모교인 光州女商후배들을 지도해온 林은 올해 西獨배구시즌이 시작되는 10월이전에 현지에 도착한다. 그러나 현재 現代에서 현역으로 활약중인 金愛珠는 林보다 늦게현지에 갈 예정이다.

現代의 주전급 6명이 모두 대표선수로 묶여있고 오는 10월 전국체전서 이들이 못뛰게됨에 따라 金愛珠는 나머지 선수들과 함께 체전에 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金이 소속한 現代관계자들은 金이 수년동안 팀에 봉사해왔고 현재는 후배 鄭粹仙에게 주전세터 자리를 물려주고 있는 점등을 감안, 金의 방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林海淑과 金은 『西獨에서 제2의 배구인생을 시작한다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 한국배구를 빛내겠다』고 다짐했다. 【金仁奎기자】



TV로 다! 한국단편의 명작

서 한 철 誘惑 죽이는 여자에 어떻게 年만의 問安 나누어 철렁 난 울어 간

방송사상 최고 청취율!

한국 비디오 센타 개점

678 BLOOR STREET. WEST

교민께 드리는 개업인사

번거로움 피하옵고…… 금번 678 BLOOR가에 "한국 비디오 센타" 라는 상호를 가지고 오는 6월 16일 수요일 영업을 시작하게 된것을 인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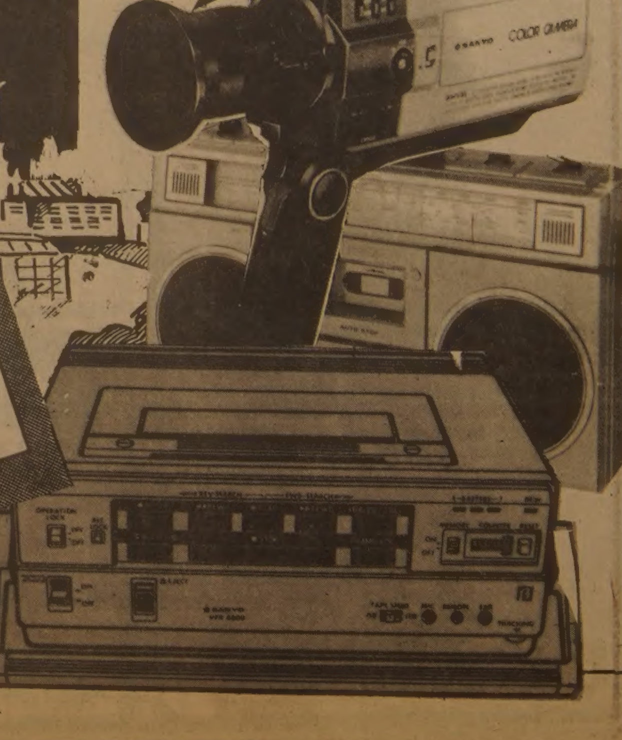
우선 대여용으로 각종 비디오 600여개와 개업기념으로 비디오기와 녹화기 일체를 특별요금으로 판매하겠아오니 일차 방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민을 위한, 가정오락을 위한 비디오 전문취급점이오니 부디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두서없이 인사말로 대신합니다.

손병헌 드림

※6월 16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본 개업점포에서 간단한 개업축하 모임을 갖겠아오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헌 친우일동

개업기념!! 비디오기계및 녹화기 일체 SAN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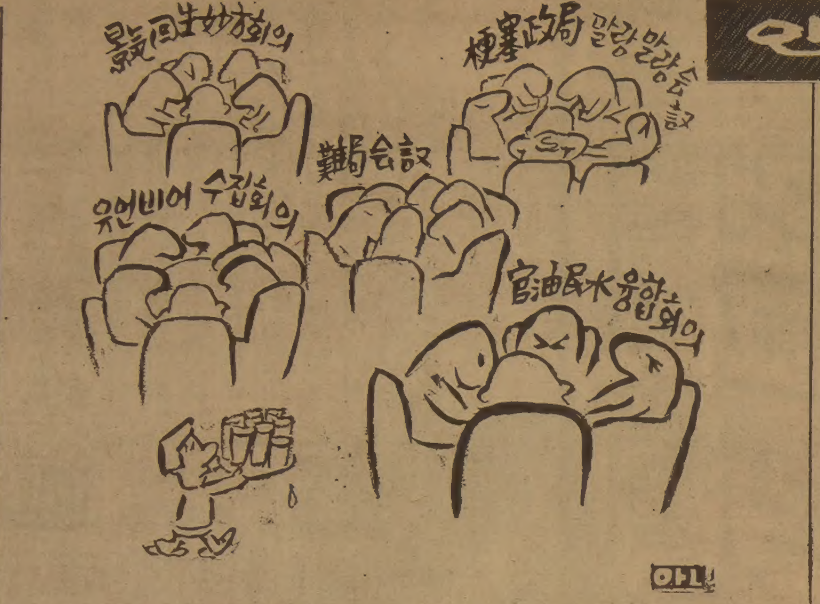
678 BLOOR STREET, W. TORONTO (고려식품 옆) 532-0210 빅 세븐 선물센타와 공동점유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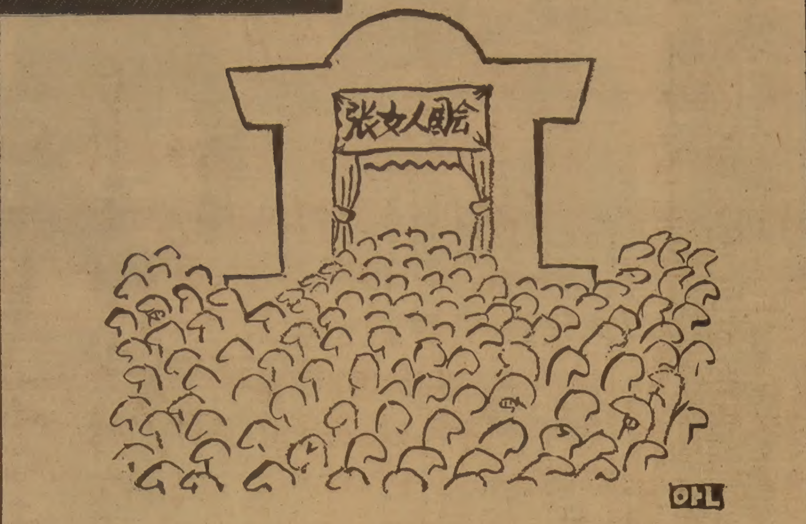
週刊한국

※언어 학습기구를 이용해서, 당신은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당신집에서 3개월간 배울 수 있읍니다. 이것은 일하거나 바빠 학교에 다닐수 없는 사람을 위해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
SAVE-O-WAY AD. CO. 533-7324, 533-4966

안의섭 時事 캬리



오전에도 會議…오후에도 會議…밤에도 會議…



題目에 좋아 모처럼의 관객도 내용이 없어 모두 내쫓고—

海外걸작漫畵

<想 像>

朴承薰교수 特講

섹스의 社会学 ⑤

●혼자 하는 스포츠

독선자의 스포츠라고도 한다. 공자는 『소인이 홀로 한가롭게 있으면 꼭 불선을 행한다』고 했다.

김삿갓의 시에 동망(東望)·서망(西望)·수망망(手忙忙)·아차 충신·효자·전초사(乾草死)라는 명구가 있다. 여자를 사서 안아볼 여유가 없던 김삿갓은 이 홀로와 스포츠를 나그네집에서 자주 즐긴거다.

수음(手淫), 즉 마스터베이션(Masturbation)은 동서 고금 아담과 이브가 생기고 난뒤 여자와 남자가 서식하고 있는데는 어디고 있다. 수 원숭이 앞에서 이 짓을 시범해 주면 원숭이는 숨질 때까지 이 짓을 못 버리고 계속, 수일내에 숨져 간다고 한다.

편리하고 간편한데다 상대적 부담 없고, 빠르고 자유로우며 임신할 걱정도 없다. 특히 원숭이 경우는 늘 그림의 떡인 인간 암컷 허벅지를 누르고 까고 타는 이미지를 십이분 활용할 수 있다.

그것도 마치 컬러TV에 나오는 자기 기호에 딱 맞는 남자나 여자를 응시하며 「수망망」인 독신자를 연상해 보면 된다. 이 경우, 여자는 원시적인 소시지를 필두로 기구사용이 압도적이다.

일본과 유럽의 어른의 장난감 기업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있다. 전기 배터리 바이브레이터를 선두로 충전용 스펀지, 고무용등 다양하다. 남자 경우는 미녀 인형에 공기를 넣으면 실물대의 여인이 탄생한다. 핸드 플레이 (Hand Play)니 에치·피(H·P)니 하던 시대는 실로 아득한 옛날이 된거다.

독서연령을 18세에서 80세라고 패드먼(Fadman)이라는 사회학자는 말하고 나서, 인간 수음연령은 8세에서 88세라고 했다. 우리도 유치원 다닐 때 그림책 앞표지에 나온 컬러 인쇄된 동년배 계집애 허벅지를 형이하학(形而下學)밑에 깔고 쾌감을 누린 기억이 있다.

구약 창세기 38장에는 오나니라는 사나이가 나온다. 기록된 수음 최초의 기록이다. 내가 「영년 구멍과 뱀의 대화」라는 현장 르포를 쓰고있던 시대, 지금의 광화문 교보빌딩 자리에 수호원이라는 중국 음식 3층집이 있었다.

어느 날 벽 구멍에 나타난 것은 그 부근에 있는 어느 회사 아가씨가 홀로 우동 하나 자시고는, 발딱 누워 미니스커트 아래로 손이 들어가고 란제리도 팬티도 자기 손으로 훑어내리고 신음, 끝나고 나서 물수건으로 손을 닦고 매우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나가는 꼴을 확인한 일이 있다.

육체파 여아 앞에서 남자 홀로 활약하는 손끝을 보고만 있던 여아가 드디어 스스로 스커트를 내리고 마는 기막힌 광경도 본 일 있다. 기막히다면 미국 리들리라는 곳에서 본 일이다.

한인 양로원이 그 곳에 있었다. 그 곳 공동 샤워룸에서 80대된 분이 홀로 즐기다 선 채로 심장마비로 숨이 막혀 아주 간 분을 본거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포도농장에서 피터·안이라는 칠순된 분이 포도 따다 안 보여 덩굴을 들치고 찾아본 일이다. 그가 쓴 볏짚모자 위에 발랑 나자빠진 플레이 보이, 핀업 걸 누드를 응시하며 수망망인 거다. 피터·안의 하늘 일각을 응지한 눈동자를 응시하며, 나는 선뜻 데포 선생이 18세기에 지은 무인도에서 살아남은 로빈손·크루소의 고독을 보았다.

그는 일기에, 받고 주지 못하는 섹스같이 처절한게 이 세상에는 다시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얼마 전 미아리 대지극장에서 내가 쓴 원작이 영화로 되었다고 해서 보러 갔다가 오는 길에 비교적 빈 시내버스를 탔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바로 앞좌석 공기가 묘하다. 젊은이가 신문을 펴들고 있는데, 그 두 눈은 하나 열 미녀 허벅지를 계속 응시하고 있다. 버스가 미아리 넘을 때까지 별 손님이 없었다. 돈암동을 지날 무렵 히 하는 피성과 함께…. 전시에 깜둥이 병사가 마랄린·먼로가 나오는 뜨거운 장면을 보면서 피성을 올리며 흔들어 내뿜던 모습에 놀란만큼 나는 놀랐다. 인간 남과 여 역사 개벽후 지금까지 계속된 일이다.

섹스가 상대적이고, 부담 주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뒷맛 개운치 않고, 어느 쪽인가 당한것 같고 한데 비하면 홀로 스포츠 즐긴다는 쪽이 홀가분해 좋은 것같기도 하지만 가장 무겁게 걸려 오는게 있다.

네 바른손 하나가 음욕을 품고 범죄하면 잘라 버리라에, 네 왼눈 하나가 범죄하면 빼버리라, 눈 하나 손 하나 없는 쪽이 헤거나의 불모 속에 드는 일보다 낫다라는 성경구절이 있다.

미국 섹스 전문지인 포럼(Forum)과 휴먼·다이재스트(Human Digest) 이번호는 수음 특집호를 내고있다.

소위 순수 우리 말로는 용두(龍頭)질이라는 것이 죄가 되나 아니냐의 토론인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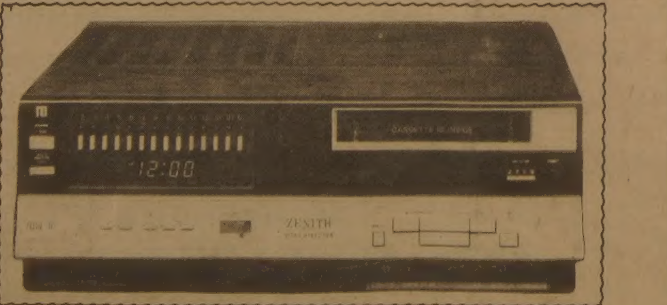
그 잡지를 보면 여자와 남자는 그 지니고 있는 구조사정도 다양하다.

여자는 앉은 의자 모서리, 자전거 안장 높낮이, 말 타고 가는 기복, 자가용 핸들 잡는 각도와 흔들리는 시꿀길, 때로는 서점 책 진열대 모난 곳이나 침대 모퉁이 베개 한쪽을 대고 있어도 오르가슴에 달하는 여자가 있다는게 사실이다.

그러면 남자는 이마에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는 보편적 차이가 난다. 악습이나 비건강적이라고 하기 앞서 해결방법은 있어야 한다. 섹스를 원죄로 보는 성바울 선생은 성욕을 참지 못하겠으면 기도하라. 그 기도 속에 자기에게 꼭 알맞는 여자, 자기에게 꼭 알맞는 남자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라. 거도하면 꼭 주실거다. 주시고 난 뒤는 딴 짓하지 말고 서로 죽을 때까지 떨어지지 말고 사랑하라고 기도하기를 간곡히 권면하고 있다.

〈계속〉

특별할인대매출



—— Model No. VR 8900 ——

$1,199.95
전 세일가격 $1,099.00
특별세일 $89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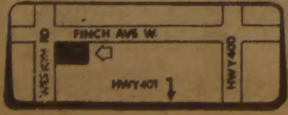
● 24 HOUR AUTO RECORDER
● PICTURE SPEED SEARCH
● TOUCH COMMAND CHANNEL SELECTION

사 과 문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저희 상점을 애호해 주신 여러 교민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ZENITH VIDEO가 이번에 본사로부터 값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의 가격도 함께 낮추어 판매하게 되었읍니다. 이점 널리 양찰하시고 먼저 구입하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교민을 위한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약속드리면서 계속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김 정 운

한국 Video Film Rent도 취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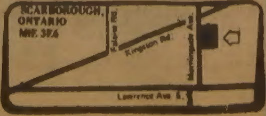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日本女大生 섹스手記

"나를 거쳐간 100명의 男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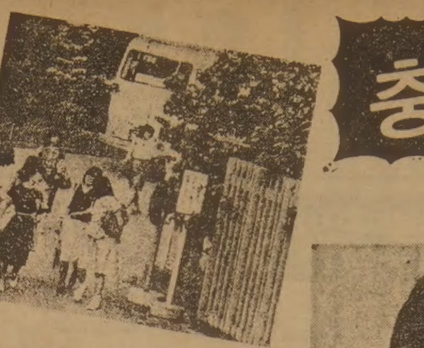
권고퇴학 십

충격波紋

왜 그토록 섹스가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조차 느껴질 정도로 대단한 남성 체험이다. 15세에 처녀를 잃은뒤 21세가 된 지금까지 학생·의사·샐러리맨과의 섹스를 적나라하게 말하는 그녀의 청춘은—. 明治시대에 창립된 日本 여자대학—이 학교의 교풍은 현모양처이다. 그러나 지금 이 교풍을 뒤흔드는 학생이 나타나 큰 파문을 던지고 있다. 문학부 국문학과(日文學科) 4학년에 재적하고 있는 고구라시·유우꼬(小暮裕子)가 구리하라·유우꼬(栗原裕子)라는 필명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KK빅셀러즈·저팬社刊)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은 제목만 읽어보면 교육관계의 책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내용은 필자가 1백명의 남자를 섭렵한 섹스고백인 것이다.

"첫男子가 매력없다고 차 매력입증 위해…"

日文學科 4년 재학중 「아무것도 모르는 父母」 책 내
15세때부터 학생·의사등과 그룹섹스등 닥치는대로


◇캠퍼스의 學友들 반응은 "학교의 수치다" "화끈해서 좋다"를 서로 의견이 다르다.

◇남성 100명과의 性체험을 밝혀 학교에까지 큰 파문을 일으킨 日本女子大學 4년생 小暮裕子양.

드라이한 文體 「처녀여 안녕」

15세때 처녀를 잃고 21세가 된 지금까지의 남성체험이 드라이한 문체로 씌어져있다. 예를 들면 「처녀여, 안녕」이란 章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가즈히꼬(和彦)가 내위에 말을 타는 모양으로…. 드디어 시작이다. 찡—하고 몸속에 통증이 느껴진다. 너무 아파서 허리를 움직여 가즈히꼬로부터 도망쳐버렸다.』

그 뒤 몸을 합치는데 성공했다는 것인데, 이 체험이 15세때였다는 것이다. 여행길에서 알게된 대학생 애인 가즈히꼬와의 첫경험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여자」가 되었다.

『발기한 그것을 다짜고짜 입안에 넣었다. 그 뒤에 실틈도 없이 내 입안에 發射해버리기 때문에.』

이 펠라치오의 묘사는 애인 가즈히꼬와 헤어진 그녀가 그와의 추억을 잊기위해 다른 대학생과 시부야(澁谷)의 러브호텔에 투숙했을 때의 체험이다.

이토록 구김없이 적나라한 섹스묘사가, 같은세대의 젊은이들에게 먹혀 들었음인지, 초판 8천부가 매진되고 현재 2판이 나올정도로 팔리고 있다.

모르는學生 없자 學校측서 문제화

그러나 아무리 솔직이 고백했다고는 하지만 이 내용이 학교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리 없다.

필명을 썼다고는 하지만 금년에 입학한 신입생들까지도 그녀를 모르는 학생이 없을 정도이다.

4월22일 그녀는 담임교수의 연구실에 불려갔다. 그곳에서 교수를 중심으로 조교들에게 조사를 받고 퇴학권고를 받았다.

賢母良妻가 모토인 校風… "이 무슨망신"
"학교 수치다" "화끈해 좋다"의견 갖가지

◇小暮裕子양은 엄격한父母밑에서 자라 국민학교와 중학교때까지 수석이었던 얌전한 소녀였다.

담임교수·조교 간접적退學권고

『너는 금년이 2번째 4학년이지. 학점이 모자라니 이대로 졸업은 안돼. 잘 생각해서 학교를 그만두면 어때?』

간접적인 퇴학권고이다. 교수와 조교들은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 『너 비닐 혼(비닐커버로 봉합된 포르노책)의 모델을 하고있다던데?』 하고 다그쳤다.

그러나 그녀는 부인했다. 『왜 학교를 그만두지않으면 안되나요? 나자신의 사생활을 쓴 것이 남에게 해를 주지는 않아요. 저는 학생자치회가 다른 학생들에게 폐를 끼쳤다고 책임을 묻는다면 그만두겠지만, 교수가 책임을 따진다면 그만둘수 없어요.』

그녀의 자신의 결의를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퇴학권고를 받았다는 그녀의 말과 그런 권고를 한바 없다고 밝히는 학교측의 발언은 서로 다르다.

◇賢母良妻가 校風인 日本女子大學.

小暮양 "나자신의 私生活쓴것 남에게 害주지않아요" 반박

학생들 의견도 서로 달라…

그녀의 이런 행동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도 서로 다르다.

『그런것까지 까발길 것은 없잖아? 학교의 수치야』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TV나 잡지에 나오는 그 용감한애 말이지? 화끈해서 좋잖아』 하교 지지하는 패도 있다.

책에 쓰여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학교로서도 잠자코 있을리 없을 정도로 그녀의 性체험은 대단한 것이다.

도오꼬도 자다(静田)에 있는 오래된 포목상의 차녀로 태어난 그녀는 日本여대부속 국민학교와 중학교때까지도 수석이었던 얌전한 소녀였다.

小·中學서 首席 嚴한 가정서 자라

현재 언니는 고등학교 영어교사이고, 부모는 매우 엄격히 그녀를 길러왔다. 日本여자대학에 진학한것은 현모양처의 교풍을 좋아하는 부모의 권유 때문이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 공부도 잘하던 그녀가 왜 「남자사냥」에 나선것일까.

그 이유를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15살때 좋아하던 남자에게 처녀를 주었는데, 그가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다고 나를 버렸지요. 그것은 쇼크였어요. 여러남자를 아는것이 여자의 매력을 만들어준다고 믿고 그때부터 1백명 채우기를 시작했어요.』

명쾌한 설명이다.

15세 봄부터 16세겨울까지 그녀가 체험한 남성은 75명이나 되었다.

애인에게 버림받은 그녀는 집을 나와 길에서 만난 같은 또래의 여고생 4, 5명과 함께 東銀座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했다. 이때 그녀는 매춘과 그룹섹스까지 체험했다.

『스스로 매춘을 한다는 의식은 없었지만, 섹스가 끝나면 남자가 돈을 주어요. 그래서 이게 매춘이구나하고 생각했지요.』

아무 죄의식도 없는것같다.

그녀는 남성편력을 거듭했다. 18세때는 자동판매기에서 파는 도색잡지의 모델이 되었다. 그 이유도 그녀답게 단순했다.

『친구들과 하와이에 놀러가려 했는데, 여행사에 낼 선금 6만엔이 없어서 비닐 혼 모델을 뽑는다기에 응모했어요.』

이 쯤되자 그녀의 부모도 단념했음인지, 그냥 내버려두게 됐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자어다. 비닐 혼 모델까지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울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곤란한것은 학교에 소문이 퍼지는 것이었다.

『학교수치다. 그만둬!』 하는 협박전화와 편지가 쇄도했다. 친구도 하나 둘 떨어져나가 외톨이가 되었다.

백명가운데 좋아서 섹스를 한 사람은 20명정도. 나머지는 충동적으로 했다는 그녀는 지금 36세의 샐러리맨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

이 아수라같은 체험을 토대로 소설을 쓰는 것이 그녀의 꿈이다.

체험을 밝힘으로써 학교에까지 큰 파문을 일으킨 그녀는 어떤 청춘의 결론을 낼 것인가—.

〈外誌〉

◇問題의 책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의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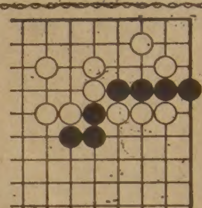
한국일보

533-2361

주간 女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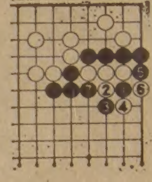
妙手풀이

〈문제도〉 黑先白死



서로 4수싸어므로 한수라도 늦추어서는 안된다. 어느 공배를 먼저 메워야 될까. 비교적 간단한 수지만 완전히 익혀놓으면 실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

〈해답도〉



제1도(정해)=흑1로 붙이는것이 좋은 수. 백2로 나갈수밖에 없으나 흑3으로 막고 백4로 잡을때 흑5와 7로 죄면 단단수가 된다.

제2도(실패)=흑1로 두는것은 백2로 나가서 그만이다. 흑가면 백나, 흑나면 백가등 이렇게 돼서는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다.

海外걸작漫畵

(우유 배달차 운전기사의 점심식사)

얘기의 샘

朗報

스미드사장이 출근하자마자 고용해서 얼마 안되는 금발의 여비서가 말했다.

『저어…사장님께 진히 알려드려야 할일이 있어서요….』

『그래?한데, 그건 좋은얘기가, 혹은 궂은 일인가?』

『그건 견해에따라 다릅겁니다.』

『좋, 그럼 좋은 쪽 견해로 얘기해줘.』

여비서는 그말을 듣고 크게 심호흡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저, 어제 병원에가서 알았는데요, 사장님이 무정자증(無精子症)이 아니란 사실이 증명됐길래 그걸 알려 드릴려구요….』

哲學여행

희랍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현인인지 여자만보면 마음이 동하므로 이윽고 어느날 『이 빌어먹을 눈아. 너는 왜 여자를 볼때마다 정욕(情慾)을 일으켜 내 철학의 수행(修行)을 방해하느냐』 면서 자신의 눈을 스스로 찔러 소경을 만들어 버렸다.

당신은 캐나다에 속합니다

…또한 캐나다도 당신에게 속합니다

캐나다는 당신의 나라입니다. 모든 주, 모든 도시, 모든 마을, 우리의 매력있는 국가의 중심지 지역, 동쪽의 대서양 주들에서 서쪽에 걸쳐 높게 솟은 록키산맥.

최고의 천연적인 미; 복잡과 단순을 겸한 친근감; 다른 나라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넓은 휴양지.

금년 당신의 캐나다의 또 하나의 부분을 아십시요.

Canada

Canadian Government Office of Tourism
Office de tourisme du Canada

"영화의 밤"

6.25! 32주년

본 회에서는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영화를 상영코자 하오니 교민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제 목

1. 최홍희, 최덕신 북한방문 기자회견
(꼭 보시라!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으로 여기는 배반자들의 만행을…)
2. 달려라! 풍선아(최신 인기 한국영화)(1시간30분상영)

일 시 : 1982년6월19일(토) 오후7시
장 소 : 한인회관
입장료 : 무료

주최 : 승공문화협회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POPEYE

미국으로 이민온 한국의 꼬마학생이 같은 또래인 꼬마친구에게 하루는 「뽀빠이」를 아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미국인 친구가 알아듣질 못했다. 미국인들은 Popeye【파파이】로 발음하기 때문에 알아들을수 없었던 것이다.

영어회화의 생명은 발음이다.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발음이 나쁘면 통하지않고 썩잘하는 영어가 아니더라도 발음이 훌륭하면 잘하는것처럼 들리게 된다.

위에서 예로든 Popeye는 미식발음인 경우 o【오】가 a【아】로 되기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pop【폽】이 아니고 pop【팝】이다.

O가 【아】로 발음되는예를 몇가지 더들어본다면 Opera 【오페라→아프라】, Olive 【올리브→알리브】 Rocket 【로케트→라킷】 October 【옥토우버→악토우버】 Comedy 【코메디→카머디】 Socrates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사크리티스】같이 발음된다.

전혀 다르게 발음되어 미국인과 통하지 않는 단어, margarine 【마가린→마저린】 film 【필림→피음】, apartment 【아파트 먼트→아팔먼】, banana【바나나→버내이너】, battery 【바떼리→배러리】, guitar【기타→그타】, vinyl 【비닐→바이늘】, Rockefeller 【록펠러→라커펠러】, tomato 【도마도→토메이도】, Yacht 【요트→얏트】,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자주쓰이는 잘못 발음되는 단어들중 몇개를 발췌한 것이지만 우리글로 표기할수 없는 부분은 그발음에 가깝도록 적은것이다.

What did you do over the weekend?
I watched TV.
Oh, What did you watch?
뽀빠이。
What did you say?
I watched 뽀빠이。
How do you spell it?
P-o-p-e-y-e. 뽀빠이。
Oh, Popeye.
주말에 뭘했니?
TV봤다。
뭘 봤니?
뽀빠이。
뭐라고?
뽀빠이를 봤단말야。
스펠이 어떻게 되니?
P-o-p-e-y-e. 뽀빠이。
아, 파파이。

※watch: 「TV를보다」고 할때는 See를 쓰지않고 항상 watch를 사용할것。

WHAT DO YOU RECOMMEND?

미국 식당에 가기를 꺼려하는 분에게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가고싶긴 한데 좋은 음식점도 잘 모르거니와 음식이름도 생소하여 잘 가게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 있다. 식당에 가서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주문을 받으려고 오면 「무슨 음식을 권하겠는가?」 What do you recommend? 라고 먼저 선수를 쳐보라. 그러면, 친절하게 무슨 음식을 택하라고 권해 줄 것이다. 만일, sirloin steak가 권하는 음식이고 본인도 좋아한다면 I'll have that. 「그것 먹겠오」하면 될 것이다.

이같이 beef로 주문한 경우 웨이터가 How do you want your beef? (쇠고기를 어떻게 구워 드릴까요?)라고 묻게되는데, 이 때는 rare (덜 익힌 것), medium (중간쯤 익힌것), well done (바짝 익힌것) 중 본인의 식성에 따라 주문하면 된다. 만일, 바짝 구운 것을 원한다면 Well done, please. 라고 하면 될 것이다.

What do you recommend? 대신 What do you suggest? 를 사용하여도 같은 뜻이 된다.

또한, 「이 집에 잘하는 음식이 무엇인가?」를 묻는 때는 What's your specialty? 하면 될 것이고, 「오늘 특별요리는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경우는 What's the special of the day? 이같이 하면된다.

참고로 「고기가 질기다」고 할때는 This meat is strong. 이 아니라 This meat is tough. 반대로 「연하다」는 말은 This meat is soft. 가 아니라 This meat is tender. 라고 한다.

A : Are you ready to order now?
B : What do you recommend?
A : Sirloin steak is our special of the day, sir.
B : All right. I'll have that.
A : How do you want your steak?
B : Medium, please.
A : 주문 하시겠읍니까?
B : 무슨 음식을 권하겠어요?
A : 설로인 스테익이 오늘의 특별요리입니다, 손님。
B : 좋아요。그걸로 하죠。
A : 스테익을 어떻게 해 드릴까요?
B : 미디엄으로 해 주세요。

※sirloin : 소허리 고기의 윗부분。 tough : 강인한。 Ex. tough meat 질긴 고기。 special : 스페셜 (스페샬이 아님)

【한국일보시카고支社제공】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連載소설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畫

78

지난줄거리

뜻밖에 서유리의 연락을 받고 밤길을 달려간 홍찬이는 서유리가 재일교포 실업가, 청년이라는 사내에게 사기 당한 것을 알아냈다. 여자들이 재일교포라는데 잘 허물어지는 약점을 최대로 이용해 먹는 박명수라는 가명의 사내는 어디에도 꼬리를 남겨놓지 않았다. 어느날 강남의 새로 지은 L호텔에 비슷한 사내가 들랑거렸다는 흔적을 찾아냈다. 홍찬이 이를 악물고 달려갔다.

전망 좋은 방 하나를 얻었다. 코피숍에 내려가기도 좋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이었다. 강변을 끼고 서있는 호텔은 신시가지의 상징처럼 하얀 새깔이었다.

『이 사진하고 비슷한 것 같았어요.』

깔치는 내가 내민 사진을 확인한 뒤에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제 봤지?』

『며칠 됐어요. 차는 슈퍼 살롱였어요. 옆에 계집애 하나 달고 다니던데요.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생각이 안나요.』

깔치는 박명수란 사내의 행동이나 말씨를 대게 기억하고 있는 눈치였다.

『왜 관심갖고 봤지?』

그녀가 그렇게 정확한 기억력을 지니고 있는 게 신기했다.

『한번 털어볼까 생각했거든요. 어쩐지 한건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못 털었어?』

『그 사내, 의심이 많아요. 아무리 꼬셔도 모른체 했어요. 하긴 옆에 계집앨 끼고 다녔으니까 틈도 없었지만요.』

『그 녀석이 어떤 녀석인데 네가 털어 먹으려고 들었어.』

『이렇게 싸악 털려고 했죠.』

깔치는 하얀 실크 투피스의 주름치마를 들어올렸다. 눈부시게 흰 팬티가 앙증맞게 보였다. 나는 껄끄럽게 웃었다. 깔치가 그 사내를 꾀어 등쳐 먹으려고 별렀다는 게 보통 재미있는 일이 아니었다.

깔치들은 그런 식으로 돈이 있을법한 사내들을 꼬드겨 몸을 맡기고는 야금야금 주머니를 털어 먹거나 놀부 애들과 연극을 벌여 한탕을 하는 부류들이었다. 나이트 클럽이나 카바레 주변에 서식하는 이를테면 양체족이었다.

『네가 당했을 걸.』

『내가 왜 당해요? 내 손에 걸리면 끝내 주지 못한 사내 없어요.』

『나도 끝내 줄래?』

『아뇨.』

『왜?』

『놀부 애들한테 돌었어요.』

『내 얘길 하데?』

『그럼요.』

『그 녀석, 내가 때려다 줄테니 한번 털어볼래?』

『때려다만 주세요. 한방에 끝내줄테니.』

그녀는 다시 깊게 파인 가슴을 살짝 열어 보였다. 브러지어 없는 서적적이고 탐스러운 젖가슴이었다.

『그나 저나 이 자식을 어디 가서 잡아야겠니? 네 생각엔 어디 좀 있을꺼 같애?』

『여기 들랑거리던 사내에 멀리 갔겠어요? 이 근처 아파트에 있거나 요상스런데 숨어서 헐떡거리겠죠.』

『그거야 네 말이 맞겠지만 …다 뒤질 재간도 없잖아.』

『기다려 보죠 머. 세월이 좀 먹는 것도 아닌데.』

『자아식.』

『심심하면 언제나 불러주세요.』

깔치는 일어났다. 빼어난 몸매와 용모였다. 저런 여자애가 어째서 이런 길로 들어섰는지 모를 일이었다. 누가 보아도 부유한 집의 딸로 대학교 초년병쯤 보아줄 청순함이 엿보였다. 그것이 그녀의 무기인지도 모른다. 그런 무기를 사용해서 어리숙한 사내들의 호주머니를 바닥내는것 같았다.

나는 무작정 기다릴만큼 성질이 눅은 사내는 못되었다. 애들을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게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재일동포흉내를 내는 녀석들이 몇명 걸려 들었지만 정작 내가 찾는 녀석은 찾아낼수 없었다.

그렇다고 여러 사람에게 신세를 져가며 찾기는 싫었다. 신세를 져서 찾는다는 보장도 없었다. 일본으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

유리가 머물러 있는 아파트에도 녀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리는 채념할 수 없다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전화를 하곤 했다.

또 며칠이 지났다. 운전면허장에 가려고 준비했던 서류를 찢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면허 없이 차를 몰고 다니는 게 불안해서 지난주부터 시험을 치르려고 별러 왔었다.

코피 숍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내 어깨를 건드리는 여자가 있었다.

여자의 비음은 사내의 속을 늘 뒤집어 놓는 것일까?
남자 수집하는 괴벽, 마음에 들면 어떻게든 해치워야

『왜 한번도 안 불렀죠?』

깔치였다. 물빛 원피스의 잡은 깔어 아주 시원스러워 보였다. 출렁거리는 가슴과 자연스럽게 흔드는 엉덩이의 율동이 매혹적이었다.

『털릴 돈이 없으니까.』

나는 깔치를 옆에 앉히고 창밖을 쳐다 보았다.

『에이, 나 순진한 계집애예요.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네가 순진한 거야 천하가 아는 사실이지.』

『놀리지 마세요.』

『다른 데서 본 적 없니?』

『전혀 못봤어요. 나도 제 돌아다니는 계집앤데 말예요.』

깔치는 자연스럽게 내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나, 술 사줄래요?』

손이 지퍼 근처까지 왔다.

『임마, 사람 봐가며 사달래야지.』

내가 슬쩍 손을 치웠다. 깔치가 곱지않게 눈을 흘겼지만 익살스러워 보였다. 웬만한 사내라면 넘어가지 않고 못배길 유혹이었다.

『사주기 싫어요?』

『그 자식 잡으면 실컷 사줄께. 지금은 술맛 떨어져서 내가 먹겨워다.』

『에엠, 그만한 값하면 되잖아.』

코먹은 소리였다. 여자의 비음은 언제나 사내의 속을 뒤집어놓은 것인지도 모른다.

『밤에 혼자 자요?』

계집애가 바싹 다가앉으며 물었다.

『그래.』

『내가 옆에서 자면 안돼요?』

『왜 자려고 그래?』

『그냥 좋으니까.』

『왜 좋아?』

『홍찬씨 같은 남자 없대서요.』

『누가 그 따위 사기를 치고 다녔나?』

『다들 그러던데 머. 대단하다구.』

주먹질을 잘 하니까 밤에 힘쓰는 것도 대단하다는 엉뚱한 소문이 난 모양이었다.

『너 정말 기절하고 싶냐?』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어이가 없어서 계집애의 머리통을 한대 쥐어 박았다. 계집애가 대번에 뾰루퉁 해졌다.

『평생 찾아도 그 사내를 못찾을 거예요. 내가 찾아나서면 몰라두.』

깔치가 이렇게 말하고 빠른 걸음으로 나갔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순간 그녀라면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밖으로 뛰어 나갔다. 그녀가 탄 택시는 L호텔 정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뒤에 서있던 택시를 잡았다.

『저 차 따라 잡읍시다.』

기사가 피식거리고 웃었다. 시동을 걸며 고개를 돌렸다.

『여자는 꽉 쥐어 잡는 게 상책입니다.』

뭔가 아는 남자같았다.

『그런 게 아녜요. 빨리요.』

『걱정마쇼. 도망가봐야 서울 안에 있을거요.』

기사는 느물거렸지만 재법 속력을 놓고 따라 잡았다. 나는 차창을 열고 소리 질렀다.

『저 앞에서 내려! 할 얘기 있으니까.』

깔치는 고개를 돌린 채 택시 기사에게 뭐라고 말했다. 그 택시가 쏜살같이 달렸다.

『따라갑시다.』

기사는 벌름거리며 웃더니 앞 차를 따라갔다. 앞차도 꽤 달렸다.

한참만에 우리는 깔치가 탄 차를 놓쳐 버렸다.

『대낮같으면 앞에다 딱 끊는 건데…』

기사가 미안 했던지 이렇게 말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추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과 신호등과 밀려드는 차량 때문에 뒤쫓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호텔로 다시 갑시다.』

『이거 미안합니다.』

퍽 공손해진 말투였다.

『할 수 없죠.』

호텔로 돌아와서 놀부 애들을 불렀다.

『개를 당장 데려와라.』

놀부 애들이 고개를 가볍게 끄덕거렸다. 그 깔치가 어디 좀 있는지 짐작한다는 투였다.

『급해. 빨리 찾아라.』

『형, 개 불쌍한 애니까 손찌검은 마세요.』

『알았어 임마.』

녀석들이 안심했는지 뛰어나갔다. 나는 호텔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누웠다. 깔치만 찾으면 무슨 단서가 잡힐것 같았다. 의미있게 내뱉고 간 말이 자꾸 귓가에 맹을 돌았다.

깔치가 들어섰다. 무서운 눈초리였다.

『앉아.』

『말하세요.』

여자라고 먹히는 암컷은 아니잖아요 난 그게싫어요
서로 필요해서 준것뿐, 그것이 인간사회의 정입니다

『아깐 미안했다. 얘기 좀 하자.』

『난 할 얘기 없어요.』

『이리와.』

깔치는 주춤거리며 물러섰다. 노여움이 가득 찬 눈꼬리였다.

『넌 뭔가 알고 있어. 그러면서도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아냐, 알고 있어.』

『몰라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내가 어떤 사내인지 알면서 내 앞에서 그렇게 냉랭할수 있다는건 그녀의 감정이 심상치않다는 뜻이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몰라요.』

토라진 모습이 차라리 귀여웠다. 나는 다가서서 깔치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깔치는 드세게 뿌리쳤다. 나는 힘주어 그녀를 안고 버티었다. 깔치는 녹었다. 흐트러졌다. 점점 눈을 내려 깔았다.

『네 마음 안다. 하란대로 하겠다.』

나는 뜨거운 숨소리를 섞어가며 이렇게 말했다.

『미워!』

그녀의 목소리엔 투정이 질펀하게 깔려 있었다.

『잘못했다잖아.』

『왜, 주먹으로 해결하지 않죠?』

『할 수도 있지. 연약한 여자에게까지 힘자랑하고 싶진 않아. 너처럼 아름다운 여자에겐.』

『난 연약하지, 않아요.』

『알아, 그러나 힘으로 네 입을 열게 하진 않겠어.』

그녀는 대꾸없이 돌아서서 내 티셔츠 윗단추를 풀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귀중한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꺼낼 수 있었지만 참기로 했다.

『난 홍찬씨를 먹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으면 당황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남자를 수집하는 피벽이 있다고 했다. 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어떻게든 해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여자라고도 했다.

그녀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먹어치웠다고 자랑하는 여자였다. 뒤가 깨끗해서 말썽 부리지 않는 게 그녀의 기질이라고도 했다.

우리는 뒹굴었다. 율동에 좋은·침대위에서 정신없이 뒹굴었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 버렸다. 그녀의 흡착력은 나를 얼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애송이가 아니었다. 남자에게 거침없이 먹고 싶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여자였다.

『날 가졌다고 생각하니?』

『그래요. 내가 훔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남자들이 그러죠, 여자를 먹었다고.』

『젊은 애들이 그런 말 하지.』

『여자라고 먹히는 암컷은 아니잖아요. 난 그런 게 싫어요. 내가 먹어 치울거에요.』

『대단하구나.』

『대단할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기분 좋으니?』

『아뇨.』

『왜?』

『난 언제나 그래요.』

『이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나한텐 고작 그게 관심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더 솔직할 수 없어요?』

『나도 사내자식이다. 네가 욕심나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알아요.』

그녀는 주섬주섬 옷을 입었다. 나는 돌아서서 그녀보다 빨리 옷을 입었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벗고 입는 일에 늦을 수밖에 없었다.

『탈렌트 연미회 찾으세요. 그 여자랑 같이 다녔어요.』

『연미회?』

나는 얼핏 기억해 낼 수가 없었다.

『텔레비전을 안보나보죠?』

『글쎄, 잘 모르겠다.』

『몇년 된 여자예요. 가끔 연속극에 얼굴이 비치지만 유명하진 않아요.』

『그 여자랑 돌아다녔단 말이지?』

『확인해 보면 알겠죠.』

『최근에 본 게 언제지?』

『한 일주일 좀 됐어요.』

『어디서?』

『저쪽 구석 자리요.』

그녀는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문고리를 잡았다. 나는 웃었다. 그녀가 다가와 등 뒤를 가리키며 웃었다. 지퍼를 올려 주었다. 그녀가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깡충거리며 나갔다.

하나님. 보셨겠죠? 우린 교환한 게 아닙니다. 필요해서 서로 준 것 뿐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와 틀린 인간사회의 정입니다. 이 정도 재미 안보고 사는 사내는 없겠죠. 혹시 발견하셨다면 상을 듬뿍 내려 주세요. 홍부가 마지막으로 탄 박속에서처럼 아리따운 여자들을 선물을 줘보세요.

『연미회를 미행해라. 눈치채게 해선 안된다. 그녀가 마지막 열쇠다.』

애들은 쉽게 말뜻을 알아들었다. 연미회를 미행하면 재일교포 사기꾼을 잡아낼수 있었다. 나는 유리에게 대충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고 아파트를 비워두라고 일렀다.

『열쇠는 애들한테 맡겨놔요. 일이 끝날때까지 갑갑하겠지만 여기와 있어요.』

그녀는 그러겠다고 했다.

유리가 호텔로 자리를 옮긴 두어 시간뒤에 애들한테서 연락이 왔다.

『여긴 정릉계곡의 산장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갔어요. 슈퍼살롱은 마당에 있읍니다.』

『내가 갈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만약 뛰려는 기색이 있으면 그때 잡아라. 자동차 바람을 다 빼놔라. 소리안나게 기술적으로 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두 보내고 서너명만 남아있어. 조심해라. 놓치면 알아서 해.』

『염려 꼭 붙들어 매십쇼. 도망갈데가 없읍니다. 길목이 하나 뿐인데요.』

『방심하지 마. 그 자식, 의심이 많아서 까딱하면 눈치 챌지 몰라. 죄많은 녀석이라 눈치 하나는 빠르니까.』

『자동차 털어볼까요? 그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일체 손대지 마라. 멀찌기서 지켜. 근처엔 얼씬거리지도 마.』

『일하는 애들 말로 두 사람이 자주 온대요.』

『이 자식들이…누가 그런 걸 확인하랬어? 그냥 지키기나 해. 내가 갈테니까.』

『알았어요.』

나는 서둘러 호텔을 나섰다. 유리가 정문까지 따라나오며 애원하듯 말했다.

『너무 다잡지 말아요.』

『버르장머릴 고쳐주겠소. 재일교포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나라 여자들을 빨아먹는 자식을 그냥 두란 말요?』

『그런 뜻이 아녜요. 생각해보면 저도 바보였어요. 사람들이 알면 당해도 싸다고 할 거예요.』

『그건 알아요. 유리씨가 너무 쉽게 넘어간 건 나도 미워요. 유리씨가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명식이하고 결혼해 달라고 조르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자식한테 당하다니….』

『죄송해요. 제가 눈이 멀었었나봐요. 여기서 남의 눈치 봐가며 사느니 일본에 가서 떳떳하게 살고 싶었던 게 제 솔직한 심정였어요. 죄 받는 건가봐요. 저같은 여자가 있으니 그런 남자가 행세하는 게 아니겠어요.』

『알았어요.』

나는 택시속에서 유리의 고운 마음씨가 앙금처럼 내 가슴에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보통 여자같으면 잃었던 돈을 찾고 곤죽이 되도록 복수를 해달라고 졸랐을것 같았다.

하나님. 도대체 경제대국이란 일본은 어떤 나랍니까? 그 나라에 사는게 뭐가 그리 대단한 겁니까? 재일교포 청년 실업가란 명함 한장이면 우리나라 여자들이 사족을 못쓰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성실하게 일해서 고국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도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저런 치졸한 사내들도 많습니다.

넋빠진 사내들을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용서하는게 직업이라면 내가 그런 사내를 혼좀나게 두들겨줘도 입봉하고 계셔야 합니다. 양세로 이 땅의 처녀 값이 떨어졌으면 그만이지 왜 새끼까지 생산하는 공장이라도 있나요?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허영에 들떠 몸망치고 途中下車일쑤

深層추적

여전한 新人배우 公募 스캔들

◇스타지망생은 많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스타가 될순 없다。 요행히 뽑힌다해도 기대치에 부응 못한채 포말화되고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진은 특정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굳이 연예사(演藝史)까지를 들먹거릴것도 없다。 그동안 우리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신인들이 반짝 허공에 떠올랐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눈이 서리도록 보아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중엔 하루아침 엄청한 빛을 발한 신성(新星)이 있는가 하면, 오래도록 찬란한 빛을 간직한 대스타도 없진 않았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 했다。 대부분은 역시 밤하늘의 혜성과도 같이 등장한뒤 유성처럼 흘러가 버린 존재없는 별들이 되고 말았다。 만 1년전인 지난해 6월、 한국영화제작자 협회는 영화산업부흥과 후계자 양성을 위해 14명의 신인을 뽑았었다。 뽑는 자나 뽑힌 자 모두 부푼 꿈에 사로잡혀 긴 마찬가지였으나 결과는 실망 뿐이었다。 이를 계기로 본 신인 등장의 표리(表裏) 파노라마-。

◇수영복 차림으로 초조히 차례를 기다리는 지망생들。 자칫 그들은 큰 착각에 빠져 돈과 몸까지 망친뒤 도중 기권하고마는 경우가 태반이다。

어렵게 뽑아놓곤 왜 안키워

◇關門도 갖가지

새 얼굴들이 탄생되는 관문은 과거 여러가지가 있었다。 그 유형은 대개▲영화사와 연결된 영화잡지등 전문지가 뽑는 경우▲영화사 단독이나▲배우학원▲직접 감독에 의한 스카우트▲기타 저명인사로 통하는 지방 흥행사들의 입김 따위로 대별된다。

또 각종 미인 선발대회에 입선된 자나 TV 브라운관을 통해 발탁(?)된 경우도 종종 있었다。

돌이켜 보면 50년대 중반께 「시네마·팬」이란 영화잡지와 강성영화사가 영화「청춘극장」의 히로인을 모집한뒤 흐지부지된 사실이 잡지와 영화사가 공동으로 신인을 뽑은 효시였던 셈。

이와는 달리 東寶영화사가 朴成大·王相美등을 신인으로 선발한 일은 당시 영화사단독으로 새 얼굴을 발탁한 첫번째 케이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들은 화려한 꿈을 안고 은막에 데뷔한뒤 소리없이 무대뒤로 사라지는 통상 신인배우의 선례를 남긴 꼴이 됐다。

57년도 宣琅영화사가 「산넘어 바다건너」의 주역들을 뽑았었는데 이때 선발된 신인이 方秀一·鄭淵子·李大燁·金美美등 4명이었다。 비교적 영화산업이 괜찮았던 시절 모습을 보인 이들중 성공한 사람은 李大燁외에 方秀一이 비교적 나은 편에 속했을뿐 鄭·金 두 여배우는 슬그머니 모습을 감췄다。

"공모新人은 短命하다"통념

韓興영화사가 59년 모집한 文泰善·張明淑·崔昌鎬등은 당시 梨大출신의 張만이 다소 출연 횟수가 많았고 文과 崔는 별 빛을 보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崔는 TV로 방향을 바꿔 지금까지 탤런트로 활약중이다。

영화「아름다운 수의」를 기획한 申필름이 신인을 모집한것은 60년도。 여기서 태어난 뉴 페이스가 太賢實·李上史·崔蘭卿·韓美子였다。

◇有情과 南貞姙

太賢實은 그후 申星一과 청춘영화의 콤비가 돼 크게 활약했으나 崔·韓·李등은 시름시름 무대뒤로 물러섰다。

이듬해 한국예술영화사가 영화「여자의 샘터」의 주역으로 뽑은 安恩淑과 安星珍은 安恩淑이 TV로 전향후 미국으로, 安星珍은 그뒤 安史一로 이름을 바꾼채 세기상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조연급으로 낙착돼 성가를 얻는데 실패했다。

65년 聯邦영화사에서 신인배우모집이 있었다。 히로인으로는 南貞姙이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당 선발됐다。 이때 南양과 강력 라이벌전을 벌였던 경쟁자 가운데는 다음해 合同영화사가「청춘극장」히로인으로 발탁한 尹靜姬양도 끼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尹양은 66년 상금 50만원을 내건「合同」의 신인 공모에 선발된뒤 훗날 南양등과 함께 한국영화의 스타로 군림하기에 이르렀다。

金明珍·高想美·吳樹美·尹姸景등 4명은 67년 세기상사에 의해 선발된 신인들。 이중에서 金은 모윤숙의「렌의 哀歌」에, 高는「女人종착역」 그리고 尹은「무영왕」에 출연, 기대만큼의 탄탄대로를 걷는듯 했다。

그러나 당초의 파격적 PR와는 달리 이들중 몇몇은 훗날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전락되는 추한 몰골을 보여줬다。

68년 세기상사는 국내 최초로 70㎜ 춘향전을 기획、1백만원 현상금의 주역배우를 뽑았다。 이 공모를 통해 당당하게 데뷔한 장본인이 鴻世美였다。 또 그녀와 함께 선발된 신인으로 金惠卿양이 있었다。

◇실기시험장 광경。 신인공모는 자칫 제작자·심사위원들간의 이해가 서로 얽혀 연기자의 단명을 불러 일으킨 경우가 적지않았다。 【사진은 특정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金양은 불과 몇편의 영화끝에 스캔들에 휘말렸고, 결국 영화와 사실상 등을 지는 신세가 됐다。 본명 都鴻淑인 鴻世美는 그후 TBC-TV등에서 화려한 연기 생활을 했으나 그녀 역시 파다한 염문속에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68년 泰昌이 선발한 呂秀珍、孫秀國、다시 72년 영화「論介」를 위해 뽑은 金玉珍、廉哲등도 불운하긴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요란한 선전과는 반대로 비실비실 때없이 주저앉은 비운의 주인공들이 됐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金玉珍의 경우 누구보다 아픈 선명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당시 영화「巫女圖」로 金芝美와 범정시비가 붙어있던 泰昌에 의해 굳게 약속됐던「論介」의 주역이 무산됐는가 하면, 이름을 朱利亞로 바꾸며 서까지 매기하던 영화「주리아」의 주연마저 빼앗겼다。

크게 실망한 그녀는 74년 여름을 金玉珍으로 다시 바꾼뒤 三映이 제작한 「바람아 구름아」에 비로소 출연, 한국 최초의 오토바이 드라마의 주역이 되기도 했었다。

80년6월 젊은 감독들 중심의 「제3영상그룹」이 뽑은 6명의 얼굴도 그뒤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때 선발된 신인으론 金賢珠·李京韶·李洙京·林松姬·李吉鉉·朴志美·金容達·金錫圭·洪熙哲등。

◇스캔들과 自滅

큰 스캔들에 휘말린 신인여배우는 대개의 경우 그것으로 연기 생명이 끝나곤했다。 또 후보자가 주역을 따돌리고 훗날 더 이름을 떨친 예도 없지 않았다。 만들제도 않은 「청춘극장」주연으로 선발됐던 金智惠·姜京姬등이 그늘에 가려진 지금, 어둘과 최종까지 각축을 벌이다 후보로 머고러졌던 金允景이 MBC-TV 탤런트로 각광 받고있는것 등이 좋은 예다。

신인 공모출신으로 막강 스타가 될 경우도 여럿 있었다。 67년 合同영화사에서 선발한 高銀兒, 76년5월 宇星영화사가 뽑은 李德華·張美姬등이 그런 범주에 속한다。

78년 영화진흥조합에서 공모한 琴寶羅(본명 孫美子)도 보기드문 신인에 끼인다。

申星一、學院출신배우 大成
艶聞속에 자취감춘 鴻世美

성공한 사례 가운데는 배우전문학원 출신도 더러 있다。 한국 배우전문학원 (원장 金仁杰) 출신의 申星一·尹良河·崔智姬가 그 좋은 예。 기타 尹美羅 朴志熙등도 전문학원이 배출해낸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였다。

처음 申은 전문학원 수료뒤 申필름 연기실에서「로맨스 빠빠」「상록수」「황성 옛터」등에 단역으로 출연, 그뒤의 성가를 굳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

당시 그는 3천5백명의 지원경쟁을 뚫은것으로 유명했다。

감독이 직접 픽업해 대스타로 만든 예 역시 적지않다。

금발의 말라깽이였던 무명소녀 카트린·드뇌브를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끌어 올린 프랑스의 로제바딩감독처럼 대스타들은 감독의 눈에 띄어 연기자로 대성한 케이스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우 원로 金綺泳감독을 손꼽고 있다。 그는 어느날 고무신 차림으로 明洞거리를 걷다가 17~18세가 될까 말까한 청초한 소녀를 발견했다。 그는 초면의 여 소녀를 다방으로 데리고 가 단도직입적으로 배우가 되지않겠느냐고 물었다。

◇감독이 픽업도

그때의 그 소녀가 한국영화계를 주름잡은 金芝美였다。

金감독은 이에 앞서 최초의 동시녹음영화「주검의 箱子」(55년)에서 崔戊龍·姜孝實을 배출했고, 고인이 된 金勝鎬와 高善愛·金三和를 영화「陽山道」에 끌어들여 배우로 만들었다。 또 그는「현해탄은 알고있다」의 주역으로 金雲夏 孔純卿을,「고려장」에서 金寶愛와 金蘭榮·鮮于龍女·尹汝貞등 탤런트를 영화에 불러들였다。

申相玉감독도 이 점에선 만만치가 않았다。 南宮遠·李民子·文貞淑·金東園·崔銀姬등을 발굴해 냈고, 한때는 申필름연기실을 꾸며 이곳을 통해 太賢實·金明姬·崔蘭卿등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文如松감독은 金英蘭·方姬를, 고인이 된 趙肯夏감독은 申榮均을 발탁, 일약 그로 하여금 스타중의 스타로 군림케했다。

또 李康天감독은 金振奎·盧耕姬·朴魯植·李藝春등을, 全昌根감독은 엄앵란·朱善泰·文惠蘭을, 張一湖감독은 吳京兒·柳美등을 데뷔시킨 관록들을 가지고 있다。

崔智姬·金惠貞은 옷보따리 하나만을 들고 무작정 상경, 꿈이 실현된 경우였으나 馬演征·申永一·나오미는 배우 겸업이던 朴魯植·申星一이 자각 뽑은 신인들이었다。

그밖에도 趙汶眞감독이 金昌淑·金眞을, 역시 申相玉감독이 申一龍을 영화에 데뷔시킨바 있다。

신인은 아니면서 처음 영화에 발들여놓은 다른 케이스로 자수성가한 경우도 없지 않다。 崔海鉉·黃貞順·朱曾女·金喜甲·具鳳書등이 그런 예로 악극이나 신파연극을 한 사람들。 연극을 하다 영화에 데뷔한 배우론 申榮均·金東園·崔戊龍·朴巖·李純才·金淳哲·崔佛岩등을 꼽을수 있을것이다。

徐良姬 孫美喜子·金倫廷등은 미스·코리아 출신。 張明淑이 아시아미술제전의 히로인으로, 그리고 미스·아이·콘테스트의 朴志映과 미스·롯데의 徐美敬, 패션모델 李慈英등이 또 다른 관문을 통과한 배우들이었지만, 이들은 단지 선전효과의 후광으로 이용된 것이었을뿐 한결같이 처음부터 신인으로 키우려는 의욕에선 제외된 신인들이었다。

대부분 신인 공모의 문젯점이 바로 여기에 있음은 물론이다。

◇公募의 문젯점

감독이 픽업한 배우가 비교적 장수를 누렸던데 반해 영화사등이 공모한 신인들의 수명이 대부분 짧았다。 이유가 있다。 공개모집의 경우 외모에 치우친·나머지 연기는 등한히 했기 때문이다。

때때로 감독은 다소 미모는 떨어지나 개성을 파악해 장래를 전망할 수 있다는 장점이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영화사의 신인공모는 제작자들이 신인을 키워야겠다는 의욕보다는 작품선전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수가 많았다。

따라서 공모된 신인배우는 제작자들이 흥행에만 관심을 쏟은 나머지 출연작품이 실패하면 후속프로가 없어 빛을 못보고 도중하차를 하거나 얼굴파는 배우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그나마 거창하게 내건 상금도 제대로 준 경우가 드물어 소송까지 빚는가하면 오히려 전속의 약점을 이용, 수입까지 착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作品 PR용 배우모집…내건 賞金떼먹기도

한때는 현상금이 걸린 공모(公募)에 힘겹게 당선됐다해도 상금을 받기는 커녕 도리어 감독이나 제작자에게 출연료를 내가며 영화에 출연한 신인도 적지 않았다。 또설상가상으로 속칭 PR까지 자식이 해가며 부푼 꿈을 살리려 안간힘을 쓰던 신인들도 있었으나 끝내 그들은 돈도, 몸도 버린채 도중하차하고 만 배우도 많았다。

한마디로 재능보다는 돈이 있어야 하는게 영화계의 병폐였다。 이 경우 여배우들이 한결 심했는데 일단 배우관문을 통과하면 여기 저기서 유혹의 손길이 뻗치고, 이것은 다시 허영과 사치에 물든 풋나기의 이질현상에 편승, 연기보다 부업쪽에 열을 올리는 고질적 병폐로 영화발전을 저해해왔다。

또 같은 여배우이면서도 재력이 없는 신인일수록 이런 현상은 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막다른 골목에 이른 이들은 심지어 영화출연을 빙자, 몸까지 팔아버리는 것은 수치로 생각지않는 풍조까지 몰고 갔다。

◇유사 映畵社도

서울엔 지금 전문배우학원이 없다。 과거 몇사람 스타로 배출해 낸 학원들이 있었지만, 잇단 비리의 노출로 모두 문 닫고 말았다。

대신 허울 좋게 배우모집기관을 자처하는 유사 영화사들이 활개하고있다。

N문예, K문예, 그리고 아동극단 K동이 그런 단체들로 최근 말썽이 터진 京保문예도 이 가운데 하나였다。

이들 단체들은 많으면 연 2회에서 3회, 적어도 1~2회에 걸쳐 신인 공모 또는 모델모집에 나서는게 통례다。

이미 밝혀진대로 1인당 각종 비용(원서비·카메라테스트비·등록비·교육비등포함) 38만원씩을 받는 합격자만 한꺼번에 1백여명씩을 배출시키는 난센스를 빚고 있다。

1백명중 대금 지불가능자만 50명을 잡는다해도 어림잡아 1천9백만원이 수중에 들어오는 꼴이 된다。 여기서 선전비및 제 경비 7~8백만원을 공제한다해도 최소한 1천여만원은 번다는 계산이다。

잘해야 기껏 한두명 단역에 출연시키는게 고작인 이들의 연례행사엔 으레 한두명씩 전에 밀려난 퇴역배우나 전·현감독들의 얼굴이 비치곤 한다。

응모자들에게 공신력을 주기위해 초빙(?)된 이들에겐 심사비나 수고비조로 7만~9만원이 건네진다는 얘기다。

이같은 기만행각을 돕기위해 모 감독은 신인모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신의 작품 이름을 선뜻 빌려준 전례도 있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E모 감독은 『자신에게도 이름 석자만 빌려달라는 요청이 온일이 있었다』며 『모두가 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굳이 문공부가 협조말라는 공문을 보냈대서가 아니라, 이젠 스스로가 그런 비리의 행각엔 초연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며 모두의 자숙을 호소하기도했다。

이해관계가 얽힌 영화사 자체의 공모는 결국 PR배우、사세선전에 이용된 다면한 포말배우화시킨 모습들을 우린 보아왔다。 또 가장 바람직한 감독 자신들의 그것도 적지 않은 잡음이 따랐음을 알고 있다。

더 더욱 전기한 유사 영화사들의 신인배우 공모실태야말로 농간당한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 모두의 공분을 사기에 족하다。

바람직한 신인 배우— 우선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가 주어져야 한다。 제작자들은 영화 1편으로 끝장을 보려는 근시안적 공모 태도 대신 장기적인 안목서 신인배우들을 육성하는게 옳다。 또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한 마구잡이식 뽑아놓기를 일삼는 유사 단체들에 당국은 강력 제동을 걸어야 한다。

연기자들 역시 자중은 필수 요건이다。 스타의 직업이 그렇게 꿈처럼 화려하지가 않다는 마음가짐이 앞서야 하고, 허영심에 들떠 무모하게 덤비는 성급함이 있어선 안된다。

배우가 되면 하루아침 인기인이 되리란 착각속에 몸까지 버리는 철부지 여배우 지망생들은 거사(?)전 한번쯤, 냉정을 되찾길 권면하고 싶다。

바른 길의 스타 탄생, 진정한 그들의 길이 보장될 날은 아직 멀었는가。 〈崔康기자〉

海外토픽

2차大戰때침몰 日最大戰艦야마또號 37년만에 발견

2차대전 마바지 美軍의 공격으로 침몰된 구일본 해군 최대의 전함 야마또(大和)의 선체가 37년만에 발견됐다。

일본해군 2천여명과 함께 일본九州 앞바다에 침몰한 야마또호는 길이 263m, 기준배수량 6만 6천톤으로 일본해군사상 최대의 전함이다。

이 전함의 선체는 2차대전후부터 끈질기게 탐색을 계속해온 「전함 야마또會」회장 이시다쓰빈에 의해 5월26일 일본 규슈 서남쪽 30도 42분 동경 128도 08분의 해저에서 발견되어 수중카메라에 촬영됐다。

이시다회장은 구일본해군 통신으로 제2함대참모부장이었으며 야마또호가 침몰될 당시 그 배에 타고있다가 마스트를 붙들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후 이시다씨는 수장된 2천여명의 전우들 명복을 위로하기위해 선체 탐색에 37년을 바쳐 왔다。

선체는 해저3백46m되는 곳에 두 동강이 난채로 이끼와 해초에 뒤덮여 있었으며 인양은 불가능한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시다 회장은 말했다。 【東京=外信】

◇수중카메라에 잡힌 구일본군 최대의 전함 야마또號선체。

섹스講座맡아온 美교수 학생들과의 性관계 시인

동성애와 그룹섹스등 학생들에게 섹스강좌를 맡아온 한 미국대학교 교수가 자신이 학생들과 「로맨틱한」 성관계를 가져왔음을 시인했다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심리학교수인 배리·싱어(38)라는 이름의 이 교수는 자신이 그동안 『전라의 몸으로 섹스유희를 즐기는』 학생들의 파티에 참석하는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져왔다고 시인하면서 『그러나 이곳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이 연애하는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주장。 【UPI】

別居아내 강간혐의 92년의 징역형 宣告

미국의 한 순회판사는 사이가 멀어져 별거중인 아내를 찾아가 강간한 한 중년사나이에게 최고 92년의 징역형을 선고。 미시간주에 사는 유진·호킨즈(42)라는 남자는 사이가 나빠져 언니의 집에 가있는 아내를 이른 새벽 문을 부수고 들어가 칼로 위협한뒤 강간했다는 것인데 테런스·토머스 순회재판소판사는 호킨즈의 정신상태나 전과를 보아 「믿을만한 시민」이 못된다면서 최하 27년, 최고 92년의 징역형을 선고。 【AP】

泰여성들에 매춘행위、말聯서 不法 入國시켜

말레이지아의 일부관리가 타이여성들을 불법 입국시켜 말레이지아에서 매춘행위를 시키는 범죄단에 관련돼있어 그 진상조사와 대응책이 시급한 상태라고 말레이지아의 스타지가 이민국소식통들을 인용, 보도。

이 신문은 일부 부패관리들이 타이를 왕래하는 기업인들과 결탁, 타이에서는 인기가 없는 20~24세의 비교적 나이많은 타이여성들에게 불법으로 말레이지아입국서류를 만들어 주어 매춘행위를 시키고 있으며 지난 5개월동안 말레이지아 당국에 체포된 불법입국타이여성만도 35명에 이른다고 주장。

그런데 타이에서는 여성이 20세만 넘으면 국내 매춘시장에서는 간주돼 인기가 별로 없다는 것。 【外】

"生計수단바꾸면 金錢지원" EEC 10개국婦女에提議

歐共市(EEC)는 10개회원국내의 창녀들이 생계수단을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줄수도 있다고 EEC의 한 고위관계자가 시사했다。

아이버·리처드 EEC사회문제담당관은 최근 유럽의회의 한 의원으로부터 이 문제에 관한 서면질문을 받고 창녀들을 정신적인 근로생활로 끌어들이려는 공공 또는 민간계획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는 경우 EEC사회기금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답변했다。 【外】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전화 : 691-6768
곽 덕열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 ~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 품 점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전화 : 259-1585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가내봉제 상세한 문의 바람
전화: 530-1046 10a.m.~5p.m. 368-7258 6p.m이후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건학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 철

노스 · 욕.시보레
○. 시보레, 올스모빌, 각종 중고트럭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부동산(매매)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저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 · 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경험이 2년정도 되는 분으로 한국자개에 관해 조예가 있으신분 구함(시간당 $5.00)
전화 : 665-8233

혼자 계신 할머니 방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서쪽지역.
전화 : 245-6217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Store Manager구함 (경험요망)
Downtown 지역
전화 : 368-8138

Donut Shop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함.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월~금,토)
전화 : 531-2689

Canadian 남성(Mid 30's)으로서 친구가 되어
주실 매력있는 한국여성을 찾습니다.
오후 6시이후. 전화 : 787-3302 (David)

동양, 서양 음식점 동업기술자 구함.
7월1일부터 배달도 할예정. 운전면허증 있는 젊은사람
전화 : 274-7010 (Mr. You)

주방헬퍼(남자)구함
628 Bloor St. W.

가게 Helper 구함. (남자)
Eglinton & Bathurst Corner
전화 : 787-6970

치과에서 일할 Receptionist 구함.
영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함.
전화 : 535-2798, 233-9454
781-9591 (저녁 6시 이후)

여권 분실

여권번호: R 296574
발행일자: 1979년 4월 23일
소지자명: 김 익균
분실날자및 장소: University & Dundas(81년 6월경)
연락처 : 743-2373

구 혼

결혼상담 , 직업소개(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884-5573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일은행 865-0456

매매및 양도

Restaurant, Tavern, Hotel & Drive in Burgers at 쎄인캐서린, 나이아가라
1)좌석20개와 17개. 15년리스. 식당파매번은 다운타운에 좋은 위치에 있음. 좋은 가격.
2)28개의 Unit가 있는 호텔(나이아가라 폭포). 좋은 가격.
3)HWY3에 있는 18에이커의 상업대지 급매. (Crystal 과 Fort Erie가는 길임) 플라자나 Drive in Burger, 도너츠·숍지역으로 적당. Traffic이 많은 HWY3 교차로 Gas Pumps있음. 더자세한 문의가 있으신분 1-892-2089 또는 657-1722(오후5시이후·토론토)
NICK KARAN R·E. BROWER

경쟁없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Tuek Shop)
주매상 : $3,000이상(꼭 관심있으신분 내방 바람)
위치 : 114 Forsythe St.(Oakville) 전화: 842-2917

자동차 급매. 75년식 벤추라 4 Dr.
P.S./P.B Auto-Trans. 260V8
전화 : 746-4289 Mike

Variety Store Special !
위치 : Oshawa Main St. 렌트 : $700
넓이 : 1250 sq.ft. 주매상 : $4,000 리스 : 6년
가격 : $39,000 + 스탁 (전부 현금요구)
9 door working cooler와 3 Bed Room Home 포함.
Bagot Realty Inc. Realtor.
1-579-4010
after hours, Call Frank Magnus 683-8154

모든 면허가 나와 있는 Restaurant(Tavern) 급매
중국음식과 한국음식을 겸해서 할수 있는 좋은 장소임.
매우 좋은 조건의 Rent와 Long Lease. 좌석: 156석
위치 : 21 Vaughan Rd.
Ask Paul or Ivan 656-9503

야마하 피아노 스튜디오 싸이즈
(STUDIO SIZE)
전화 : 766-8849 Mr. 문

성업중인 세탁소 매매.
465 Vaughan Rd. Tor.
관심 있으신분 내방 바람.

호텔, 모텔, 타번(술집) 사업매매에 관심이 있는분.
전문적인 호텔, 모텔, 타번등의 많은 비즈네스를
갖고 있음. 전화 : 223-1600 (Mr. 캐비츠)

Variety & Hardware Store.
넓이: 2,000 sq.ft.(큰 Plaza안에 있음)
리스: 4년+5년. 렌트: $1,700(Monthly)
주매상: $9,000 이상 아스킹: $100,000+스탁
361 Carrville Rd. Unit 1-2. Thornhill. Ontario
(Hill Crest Shopping Mall 옆)

Milk & Grocery Store 급매
주매상: $4,500 가격: $43,000+스탁. 렌트: $1,000
936 College St.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r. 손

매상이 계속 늘고 있고 주위에 경쟁없는
Variety Store 사정상 급매. 주매상: $3,500
전화 : 239-7267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364-0984 REMA FURNITURE

번화한 관광지역 안에 버라이어티 스토아
성업중임.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음)
넓이 : 2000 sq.ft., 넓은 Parking장 있음.
아스킹 : $139,000 + 스탁. 년 순이익 : $46,000
그외에 2개의 아파트먼트로부터
일년 수입 약 $5,100
Irven DeGraw
691-6111 or 1-705-325-6193
Royal Trust Real Estate, Realtor.

2층 살림집 포함한 Downtown에 위치한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
전화 : 769-3265

6년동안 한주인이 경영했던 성업중인 큰 규모의
Variety Store 매매
넓이: 1700 Sq.ft. 리스: 8년반. Rent: $1,168/mon.
주매상: $7,000이상+로타리오. 아스킹: $93,000+스탁
790 Military Trail(Morningside &Military Trail)
꼭 관심있으신 분의 내방바람.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건강상 급매코저 함.
(일요일 문닫음) 주매상: $4,000 리스 4년반+5년옵션
전화 : 757-9410

대단히 좋은 거주 지역안에 오랜동안
성업중이던 큰 Variety & Smoke Shop (in Etobicoke)
사업을 크게 일으킬수 있는 좋은 기회임.
Stan Konarzycki
전화 : 236-1871, 622-2365
Royal Trust Corporation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다른 사업관계로 매우 성업중이며 대단히 바쁜
지역의 꽃가게(Retail) 매매. 주변에
Free Parking도 가능함.
넓이 : 3,650 Sq.ft.
전화 : 1-634-9679 John
(오후 6시 이후 연락바람)

1) Somke & Gift Shop
주매상 : $5,000. 리스 : 5년. 렌트 : $660
아스킹 : $50,000.
2) Fast Food Take-out Business
주매상 : $5,000. 주5일 Open. 바쁜 네거리에 위치한
Office Building 내.
리스 : 1990년. 렌트 : $830. 아스킹: $225,000
3)번화한 공장지대에 위치한 드라이브인 햄버거·숍
주매상 : $8,000. 리스 : 4년+옵션. 렌트 : 1,700. 아스킹 : $350,000
A. E. LePage (Ontario) Ltd.
Tel: 741-9170 (Mrs. Woo)

Bungalow for Sale (Private Sale)
써브웨이에서 가까운 에그린톤과 베더스트
지역. 7 룸. 큰 리크리에이션 룸. 다용도실등.
관심 있으신분 오셔서 보십시요.
전화 : 783-7954

Franchise(후렌차이즈)
영구적인 안정된 사업체
881-8230 Mr. 윤

Variety Store(Whitby Shopping Mall 센터)
가격: $39,000 주매상: $4,500 렌트: $1,100
3년리스 + Negotiation 전화: 1-579-4507 Mr.Lee

전망좋은 밀크스토아 매매.
휜치×베더스드 지역.
전화 : 222-5370

오타와 지역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함.
전화: 1-613-238-3837 Mr. 정

Hardware & House Ware Store
높은 이익과 낮은 Rent.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있음.
928 Danforth Ave. 전화: 466-3423 (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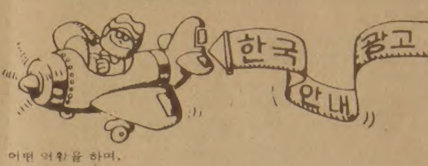
비즈네스 또는 건물딸린 비즈네스 매매.
현재 코리아타운에서 성업중인 케익점.
661 Bloor St. W. 전화 : 535-8605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하우스

〈 방 구함 〉
부엌, 화장실 있는 방 구함.
전화 : 921-1681

한국안내광고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경우에 필요하며,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일까요?
보다 높은 광고효과로 밝은 내일을 설계하십시요.

●▲구인 ▲구식 ▲재봉사 ▲찾는사람
▲구혼 ▲여권분실

●▲매매 및 양도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자동차 매매
▲하우스 렌트 ▲사무실·점포렌트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읍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한국인 컴뮤니티의 모습을 한눈에 보실수 있는 한국안내광고는 여러분의 사업과 함께 성장하고 있읍니다.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소석민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 남·녀 컷, 파마전문
•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쇼×로얄욕) 전화: 255-4745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광고문의 533-2361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퀸스웨이×이슬링톤 전화 : 252-7377 Mr. 안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Peter's Photography.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 한국일보 안내광고 ＊